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13호 【루계 제26187호】 주체107(2018)년 11월 9일 (금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 이 구호를 더 높이 추켜들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조국땅우에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시대를 펼쳐나가고있다. 력사의 온갖 도전과 시련을 강행돌파하며 폭풍쳐나아가는 총진군대오에 우리 식, 우리 힘에 대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 필승의 신심과 락관이 차넘치고 있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 이것은 주체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지금으로부터 40년전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제시하신 이 구호의 전인력과 생활력은 날이 갈수록 더욱 힘있게 파시되고있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는 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존엄을 온 누리에 빛내이며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우리 당과 인민의 신념은 확고부동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혁명의 전세대들이 피와 땀을 바쳐 이룩해놓은 이 땅의 모든 재부들을 소중히 여기고 더욱 빛내이며 높은 민족적자존심을 지니고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모든것을 우리 식으로 창조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는 구호에 관통되여있는 기본사상은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불어오고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우리는 오직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만을 높이 추켜들고나가야 한다는것이다. 다시말하여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제정신을 가지고 사고하고 행동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인민의 리익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간다는것이다. 자기식, 자기 힘으로 살아나가는데 조국과 민족의 끊임없는 전진발전과 앙양한 전도가 있다.

올해에 우리는 공화국창건 70돐을 성대히 경축하였다.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공화국의 70년력사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인민이 가장 긍지높이 새긴것은 바로 우리 식, 우리 힘에 대한 자부이다. 우리 당과 인민은 장구한 혁명투쟁의 나날 제국주의자들의 압력속에서도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을 철저히 구현하였으며 남들이 수정주의바람에 현혹되여 혁명을 망쳐먹을 때에도 끄떡하지 않았고 오늘도 변함없이 자기의 신념에 따라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고있다. 천리마대고조와 로동당시대의 일대 전성기, 력사에 류례없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에서의 위대한 승리와 새로운 주체100년대를 진감시킨 민족사적대사변들의 밑바탕에는 주체의 원칙이 놓여있다. 우리 식대로, 바로 여기에 주체조선이 순간의 침체와 답보도 없이 년대와 년대를 백승으로 수놓아올수 있은 근본비결이 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건설의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남의 식을 따르고 남에게 의존하여 살아가던 적지 않은 나라들이 제국주의자들의 희생물이 되고 전란을 겪고있는 비극적현실을 목격하면서 우리 인민은 당의 주체적로선과 정책이 천만번 정당하다는것을 심장깊이 절감하고있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혁명투쟁의 조건과 환경이 달라져도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는 구호를 변함없이 추켜들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 이 구호는 주체조선의 자주적존엄과 승리의 영원한 기치이다.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며 당과 국가활동에서 자기식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구현해나갈 때에만 담보될수 있다.

주체조선의 건국과 발전행로는 자주로 일관되여있다. 우리 당은 자주의 기치높이 사대와 외세의존으로 하여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나라를 짧은 력사적기간에 그 누구도 감히 범접 못하는 정치군사강국으로 세계정치의 중심에 당당히 올려세웠다. 자주를 떠나 주체조선, 영웅조선에 대하여 말할수 없고 누리에 빛나는 우리 공화국의 존엄에 대하여서도 생각할수 없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평생이 어려여있는 자주를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주체조선의 신화적인 기적의 력사를 계속 써나가야 한다.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해나가는 전진도상에 앞으로 더욱 엄혹한 시련과 난관이 조성될수도 있다. 우리는 어떤 역경속에서도 추호의 흔들림없이 우리가 선택한 길을 따라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는 바로 여기에 자주의 기치높이 우리 혁명을 개척하고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 길이 있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 이 구호는 경제건설대진군, 자력갱생창조대전의 전투적기치이다.

지금 우리 당은 경제전선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나가고있다. 조국번영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치면서 우리 당이 믿고 의지한것은 위대한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창조력과 자립적민족경제의 굳건한 토대이다. 남을 쳐다보고 우연을 바라서는 그 어떤 성과도 기대할수 없다. 당의 구상과 결심이 어떻게 현실로 펼쳐지는가 하는것은 우리 인민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어떻게 발휘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자력갱생, 이것은 우리 식의 혁명방식이고 창조본때이며 투쟁기풍이다. 여기에는 우리 당의 자주사상과 애국리념이 구현되여있고 굴함없는 공격의지가 체현되여있다. 최근 우리 인민은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관철에 산악같이 떨쳐나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기념비적창조물건설과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실현,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자기 힘을 믿고 자강력을 끊임없이 증대시키며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나가는데 경제건설대진군의 승리가 있고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이 있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 이 구호는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발양의 초석이다.

자기식대로 살아나가는 인민만이 민족적우수성을 고수하고 더욱 빛내여나갈수 있다.

지금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세계화》의 흐름에 말려들어 수많은 민족들의 문화와 풍습 지어 언어까지 이질화되고있다. 외세가 판을 치고 민족성이 유린말살됨으로 하여 자기 조국도 민족도 모르는 사람들이 범람하고 약소민족들은 지구상에서 점차 사멸되여가고있다.

우리 조국과 인민의 존엄과 영예, 양양한 전도와 미래는 우리 국가제일주의, 우리 민족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해나가는데 있다. 주체조선, 조선민족의 강대성과 우월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사회주의조국의 위상을 더 높이 떨치려는 자각과 의지, 이것이 우리 국가, 우리 민족제일주의이다. 국제무대에서 당당히 제할소리를 하는 강자의 자세도 우리 국가제일주의에서 나오고 세계를 앞서나가려는 자신만만한 배짱과 투지도 우리 민족제일주의에서 생긴다. 민족자주, 민족자존의 정신력이 강한 우리 인민에게는 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긴 제재봉쇄책동도, 교활한 심리모략전도 절대로 통할수 없다.

이 하늘아래, 이 땅우에 하루빨리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워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을 시대의 상상봉에 올려세우려는것은 우리 당의 철석의 의지이며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열망이다. 우리는 주체조선, 영웅적인민의 드높은 자존심으로 사회주의승리의 궤도를 따라 더욱 힘차게 나아갈것이다.

우리 식은 곧 주체식이며 이보다 더 좋은 식은 없다.

전체 인민들은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는 당의 구호를 주체혁명의 영원한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진격로를 더욱 힘차게 열어나가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자주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혁명사상이며 우리 혁명의 유일한 지침이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간다는것은 곧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대로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나간다는것이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전체 인민이 김일성-김정일주의학습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모두가 주체사상을 뼈에 새겨놓은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들로 억세게 준비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로작들과 당문헌, 현행당정책을 환히 꿰들고 그것을 자로 하여 모든것을 재여보며 혁명과 건설을 철두철미 주체의 요구대로 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강령적지침으로 틀어쥐고 한치의 드팀도,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철저히 관철하며 수령님들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반드시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

령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의 위대한 혼연일체를 백방으로 강화해나가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조국의 무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강행군에 심장의 박동과 전진의 보폭을 맞추며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야 한다. 당에서 과업을 주면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이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반드시 해내고야 마는 완강한 실천가가 되여야 한다.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높이 받들어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기풍이 온 나라에 차넘쳐야 한다.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인민적시책들이 더 큰 은을 내게 함으로써 인민들이 당의 사랑과 은덕을 페부로 느끼고 당의 혁명위업수행에 한몸 다 바쳐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의 국력, 우리의 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경제건설대진군에 박차를 가해나가야 한다.

자기 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지닌 인민만이 온갖 도전과 시련에도 끄떡없이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억세게 나아갈수 있다.

오늘 력사에 류례없는 가혹한 제재봉쇄속에서도 거지적으로 일떠서 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국력과 발전잠재력에 세계가 경탄하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의 일심단결의 위력과 국가경제력은 적대세력들의 제재압박보다 더 강하며 최후승리는 우리 의것이라는 신념을 굳게 간직하고 자력갱생대진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삼지연군건설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을 비롯한 기념비적창조물을 일떠세우는 대격전에서 주체조선의 본때, 영웅적인민의 기상을 힘있게 떨쳐야 한다.

나라의 경제를 정비보강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야 한다. 현대과학기술을 원동력으로 하고 첨단기술산업을 기둥으로 하는 지식경제의 토대를 구축하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정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야 한다. 모든 생산공정을 로력절약형, 에네르기절약형으로 전환시켜 적은 자재와 로력으로 최대한의 실리를 보장하며 최고의 생산실적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무엇을 하나 창조해도 주체적립장에 확고히 서서 새롭고 발전적인것들을 창조하며 선진적인것을 받아들여도 철저히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 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어느 부문, 어느 단위에서나 과학기술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인재를 중시하고 그들의 역할을 최대로 높여나가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과 혁명을 보위하는 전위부대, 전초부대로 내세워준 당의 사랑과 믿음을 학생의 재부로 간직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나가야 한다. 강한 민족적자존심을 지니고 세계를 앞서나가기 위한 두뇌전, 기술전을 과감히 벌려야 한다.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지키고 빛내이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한다.

제국주의사상문화적침투책동이 날로 우심해지는 오늘날 우리 식의 건전하고 고상한 생활양식을 지키는 문제는 사회주의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로 나서고 있다.

우리는 혁명하는 인민답게 모든 사업과 생활을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기백있게 해나가야 한다.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미풍을 더욱 높이 발양하여 온 사회를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으로 꾸려나가야 한다. 누구나 향토애, 조국애를 지니고 자기가 사는 거리와 마을을 알뜰히 꾸리며 공장과 학교, 군과 도, 온 나라를 우리의 멋이 살아나고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훌륭히 변모시켜나가야 한다. 누구나 옷차림과 몸단장을 하여도 우리 식으로 하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어도 우리의 선률과 장단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어야 한다. 음식을 하나 만들고 유희와 오락을 해도, 명절을 쇠도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민족적풍습을 적극 살려나가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인 사상문화와 이색적인 생활풍조가 발붙일수 없게 그 싹부터 철저히 짓뭉개버려야 한다.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비상히 높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우리 식대로 살아나갈데 대한 당의 구호의 본질과 요구를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백승을 떨쳐온 우리 혁명의 력사와 전통을 뼈에 새기고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켜나가도록 정치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심어주기 위한 혁명적인 사상공세를 힘있게 벌려 남이야 어떻게 하든 우리 식대로만 살아나가는 투철한 신념과 어떤 역경속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만난을 뚫고 기적을 창조해나가는 자력갱생정신이 온 나라에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특히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세대들에 대한 교양사업에 큰 힘을 넣어야 한다.

모두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억세게 투쟁함으로써 우리 조국을 세계가 우러러보는 사회주의강국으로 빛내여나가자.

평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각하께

원수각하

아프리카의 주체사상신봉자들인 우리들은 기네공화국의 수도 꼬나크리에서 기네의 진보적인사들과 함께 《민주주의, 자주, 발전》에 관한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토론회를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존경하는 당신께 이 편지를 드립니다.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것을 천명한 주체사상은 매개 나라의 민족적독립을 실현하기 위한 길을 환히 밝혀주고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진보적인민들은 사회주의조선에서 일어나고있는 거대한 변혁이 위대한 김일성주석각하께서 창시하시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각하께서 심화발전시키신 사람중심의 주체사상이 가지은 고귀한 결실이라는것을 한결같이 인정하고있습니다.

아프리카나라들에서의 민주주의는 외세의 간섭이 없이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 매개 나라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실현되여야 합니다.

오늘의 국제정세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적인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굳게 단결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원수각하

김일성주석각하께서와 김정일령도자각하께서 한생을 바쳐 이룩하신 위대한 업적들과 당신께서 조선인민을 령도하시는 과정에 말성하신 모든 성과들은 주체사상을 연구보급하고 현실에 구현해나가기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매우 귀중한 교과서로 됩니다.

주체의 한길로 힘차게 걸어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무진막강한 국력과 지위를 세계앞에 과시하고 자신만만하게 경제건설에 모든 힘을 집중하면서 조선반도와 지역에서의 평화와 번영,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고있습니다.

이것은 전례없이 복잡한 정세와 환경속에서도 당신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과감하게 투쟁하여온 조선인민의 력사적장거로, 주체사상의 정당성에 대한 뚜렷한 증시로 됩니다.

우리는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다시한번 확언하면서 아프리카나라들에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연구보급하기 위한 활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민주주의, 자주, 발전》에 관한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토론회 참가자일동

2018년 11월 3일 꼬나크리

《민주주의, 자주, 발전》에 관한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토론회 진행

《민주주의, 자주, 발전》에 관한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토론회가 3일 기네의 꼬나크리에서 진행되였다.

토론회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주체사상의 기치높이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공화국의 자랑찬 현실을 소개하는 도서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서기장과 리사들인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전국위원회 위원장, 기네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아프리카민주련합-기네민주당 총비서대리를 비롯한 여러 나라와 지역의 각계인사들이 토론회에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축하연설과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서기장 앙드레 로세젤레 깔론다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발언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자주성실현과 새 사회건설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불멸의 지침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주체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추켜들고나가시는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체 인민의 일심단결이 있기에 조선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불패의 강국으로 더욱 위용떨치고있다고 강조하고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 경축행사를 통하여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다시한번 절감하였다고 하면서 그들은 전체 참가자들이 앞으로도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아프리카지역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것을 호소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탄전을 들끓게 하는 화선식경제선동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화선식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려 일터마다 혁명적열정과 증산투쟁으로 들끓고 창조와 혁신의 기백이 차넘치게 하여야 합니다.》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 탄부들을 증산돌격운동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북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고있다.

련합기업소당조직에서는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집중경제선동과 막장경제선동을 더욱 활발히 진행하고있다. 하여 혁명적인 사상공세의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로 탄부들의 투쟁기세를 고조시키고있다.

덕천지구의 탄전들에서 힘차게 울려퍼지는 화선식경제선동의 북소리는 우렁찬 진군가가 되여 제남탄광, 청봉탄광, 남양탄광 등 여러 탄광들을 부글부글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석탄증산에로 탄부들을 불러일으키는 화선선전, 화선선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당위원회일군들은 굴진, 채탄막장들을 비롯한 전투현장들의 곳곳에 탄부들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로 고무추동하는 호소성이 강한 구호와 표어들을 게시하고 탄부들의 심금을 울리는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하고있다.

화력에 의한 전력생산을 늘일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화력탄생산의 많은 량을 맡고있는 제남탄광과 서창청년탄광에서 집중경제선동의 북소리가 힘차게 울려퍼지고있다.

방송선전차와 백여명의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을 비롯한 선전선동력량을 탄광들에 집중한 련합기업소에서는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탄부들을 증산돌격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당정책을 민감하게 반영한 예술활동과 화선선동, 로력적지원은 탄부들의 투쟁열의를 더욱 북돋아주고있다.

각 탄광들에 내려간 백여명의 련합기업소일군들은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대오의 기수가 되여 대중을 석탄증산투쟁에로 불러일으키고있다.

제남탄광, 덕성탄광, 서창청년탄광, 덕천탄광에 내려간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들끓는 막장에 전투좌지를 정하고 탄부들의 심장에 투쟁의 불을 다는 침입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일군들은 굴진과 채탄에서 앞서나가는 단위와 탄부들을 널리 소개선전하고 그들을 따라배우고 따라앞서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의의있게 조직하여 집단적혁신이 일어나게 하고있다.

지금 덕천지구의 탄전들마다에 울려퍼지는 화선식경제선동의 힘찬 북소리는 탄부들의 심장마다에 혁명열, 투쟁열을 백배해주고 증산돌격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 끊임없는 혁신창조로 들끓게 하고있다.

본사기자 명춘길

본국에서 — 본사기자 김진명 백옥

평양철도국 북창철도 —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화력탄수송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위대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5대교양을 실속있게 벌려야 합니다. 김정은

옳은 방법론은 높은 실효의 담보

조선혁명박물관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최근 조선혁명박물관 일군들과 종업원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들의 로작과 당정책에 대한 학습열풍이 더욱 고조되고있다.

초급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절세위인들의 위대성을 뼈와 살로 새기기 위한 학습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으며 실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혁명박물관사업을 개선강화하자면 일군들과 강사들을 비롯한 종업원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초급당위원회는 위대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5대교양을 방법론있게 진행하여 실효를 거두고있다.

우선 학습담화를 실속있게 진행하여 사람들에게 학습에 대한 옳은 관점을 심어주는 한편 학습열의를 높여주고있다.

언제인가 초급당위원장은 부장이상 일군들과 당초급일군들이 단위의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학습담화를 진행하고있는 정형을 료해한적이 있었다.

일부 부장이상 일군들과 당초급일군들은 일이 바쁘다고 하여 학습담화를 소홀히 여기고있었다.

학습담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우쳐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초급당위원장은 자신이 직접 한개 학습반을 맡고 내려가 담화를 진행하기로 결심하였다.

단위에 나간 초급당일군은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줄을 들어 학습담화를 진행하였다. 진지한 태도로 그들에게 단위에 깃든 령도업적내용에 대해 풀어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잘 모르는 내용들은 알려주었으며 학습을 실속있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따끔히 일깨워주기도 하였다.

이렇게 진행한 학습담화의 결과는 매우 좋았다.

학습반원들에게 학습에 대한 옳은 관점을 심어준것이 무엇보다 좋았다. 원리적으로 깨우쳐주는 과정을 통해 절세위인들의 위대성을 폭넓고 깊이있게 알게 한것 역시 좋은 점이였다.

이것을 목격하면서 그 단위 일군들과 당초급일군이 많은 충격은 컸다.

이런 일이 있은 후 그 단위 일군들과 당초급일군은 학습담화방법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주별계획에 따라 어김없이 진행해나가게 되었다.

관리부문과 후방부문의 부서들에 나간 초급당일군들의 학습담화 역시 그 단위 일군들과 당초급일군들의 자각을 높여주었다.

이들 계기로 일군들과 당초급일군들은 학습담화를 잘하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깊이 깨닫게 되었다.

모든 부서들에서는 위대성교양자료들에 대한 인식정형과 절세위인들의 로작, 당정책학습정형을 료해하는 학습담화를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이것은 그대로 강사들과 종업원들의 학습열의를 더한층 고조시켜 높은 사업성과로 이어지고있다.

초급당위원회가 학습강사의 날과 선동원의 날을 실속있게 운영하여 당초급선전일군들의 역할을 부단히 높여나가는 방법으로 부서들마다에 혁명적인 학습열풍이 세차게 일게 한것도 좋은 점이라고 볼수 있다.

실례로 학습강사의 날에 모범학습강사의 영예를 지닌 전동남부장을 비롯한 능력있는 학습강사들을 내세워 경험토론을 진행하게 하고 그들의 모범을 따라배우게 한것을 들수 있다. 위대성교양자료를 기본으로 하면서 5대교양자료를 적절히 배합하여 진행하는 학습강사들의 강의방법들은 다른 학습강사들에게 좋은 경험을 배워주었고 그들의 역할에 의하여 학습반별로 진행하는 강의의 실효는 날을 따라 높아가게 되었다. 결국 강사들과 종업원들의 학습열의도 높아졌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선동원의 날 운영도 실속있게 하여 그 실효를 부단히 높여나가고있다. 여기서 좋은 점은 선동원대렬에 갓 들어온 성원들이라고 하여도 교양사업을 심감있게 진행하여 높은 사업성과를 거두었을 때에는 적극 내세워주고 그들의 모범을 따라배우게 하고있는것이다.

최근에 강사들은 물론 종업원들속에서 학습열의가 높아지고 많은 일에서 혁신적인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는것은 이처럼 초급당위원회가 학습강사의 날과 선동원의 날 운영을 방법론있게 잘 한것과도 크게 관련되여있다.

초급당위원회는 분담식학습과 5대교양판해설경연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사상교양사업의 실효를 높이고있다.

이곳 박물관에 가면 출퇴근시간마다 이채로운 풍경을 볼수 있다.

누구나 손에 책을 들고다니는 모습이다.

이곳 일군들의 말에 의하면 분담식학습열풍속에 책을 보는 기풍이 확고히 세워지게 되였다고 한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항일유격대식학습방법의 우월성을 실천으로 확증한 분담식학습경연을 매달 어김없이 조직하고있다. 지난 10월에도 박물관에 깃든 절세위인들의 령도업적과 발전력사에 대한 문제들을 놓고 당세포별, 근로단체조직별로 분담식학습경연을 진행하였다.

그 실효는 대단히 컸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단위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자자구구 학습한 후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5대교양판해설경연 역시 종업원들의 학습열기를 높여주는데서 큰 작용을 하고있다. 얼마전에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강사들을 내세워 5대교양판해설의 형식과 방법에 대한 보여주기를 진행하였다. 그런 다음 부서별로 해설경연을 조직하였는데 종업원들의 열의는 대단했다. 결국 누구나 능숙한 해설원, 선전원이 된셈이다.

결론은 무엇인가.

사상교양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하기 위한 방법론을 부단히 탐구한것만큼 단위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학습열의가 높아지며 혁명과업수행에서의 보다 큰 성과로 이어진다는것이다.

본사기자 장철범

애국주의교양을 실천과 결부하여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초급당위원회에서

사상교양사업은 실천과 밀접히 결부될 때 큰 실효를 거둘수 있다.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실속있게 진행하여 그 실효를 높이고있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초급당위원회 사업이 주목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발전소초급당위원장이 격동적인 현실의 요구에 맞게 종업원들에 대한 애국주의교양에 보다 큰 힘을 넣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절감하게 된 계기가 있다.

생산실태를 료해하는 과정에 일부 종업원들속에서 자기 일터에 대한 애착심이 부족하거나 맡겨진 혁명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있는것을 알게 된것이다.

발전설비들에 대한 관리를 잘하고 생산을 늘이자면 일군들과 종업원들속에서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보다 참신하게 진행하여야 되겠다고 일군은 결심하였다.

초급당위원회는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과 연혁소개실을 비롯한 사상교양거점들을 훌륭히 꾸리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사상교양거점들을 리용하여 조국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로고를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주게 하였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또한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마음속에 소중히 깃들어있는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잘 짜고들었다.

일군들부터가 김정일애국주의를 실천활동에 구현하기 위한 사업의 앞장에 섰다.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은 전력생산이 진행되는 전투장 한복판에 자기 위치를 정하고 종업원들속에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에 깃든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새겨주었으며 절린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가면서 전력생산을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누가 알아주건말건 궂은일, 마른일 가림없이 어렵고 힘든 모퉁이마다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고 전력생산의 성과적보장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기술자들과 종업원들의 애국적소행을 제때에 찾아내여 여러 계기때마다 소개하고 일반화하는 방법으로도 애국의 마음들을 계발시켰다.

이러한 사업들은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가슴마다에 애국심을 키워준 밑거름으로 되였다.

그 실효는 높았다.

발전소의 일군들과 당원들, 기술자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 자기 단위를 령도업적단위답게 보다 훌륭히 꾸리였으며 전력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위훈을 떨치였다. 백두산영웅청년1호, 2호, 3호발전소들에서 발전설비들의 동음을 높이울려 뜻깊은 올해의 전력생산에서 큰 성과가 이룩되게 하였다.

이곳 초급당위원회의 사업은 모든 당조직들에서 격동적인 현실의 요구에 맞게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참신하게 짜고들 때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서 자랑찬 성과를 안아올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실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채인철

신념의 강자들로 억세게

함경북도치과병원 초급당위원회에서

함경북도치과병원 초급당위원회에서 의료일군들의 가슴마다에 항일선렬들이 간직하였던 혁명적신념을 새겨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이 지녔던 높은 혁명정신과 그들이 쌓아올린 혁명업적과 투쟁경험은 우리 인민이 영원히 따라배우고 계승해나가야 할 귀중한 재보입니다.》

지난해 봄 병원의 일군들이 이발본뜨기재료를 해결하던 때의 일이다.

초급당위원들의 모임에서 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말하였다.

가만히 앉아서 부족되는 재료가 보장되기를 기다릴수는 없다.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면서 의료봉사활동을 벌려나가자. …

위원들의 생각은 한결으로 흘렀다. 보철과 의사들인 방영남, 리혁철동무들을 경성군에 있는 어느 한 공장에 보내여 그 재료를 해결해오게 하자는것이였다.

이런 때 초급당위원장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예비를 대중의 심장속에서 찾고있는 위원들을 적극 지지해준 그는 종업원들의 정신력을 발동하기 위한 방도까지 내놓았다. 그것이 바로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신념교양이였다.

그는 모든 당세포들에서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하자고 결심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에 대한 연구발표모임을 진행할것을 제기하였다. 의료일군들의 가슴속에 자기 힘을 굳게 믿고 떨쳐나서면 극복하지 못할 난관이 없다는 신념을 다시금 심어주려는 의도에서였다. 그러면서 보철과 의사 방영남동무를 회상기연구발표모임에 출연시킬데 대한 분공을 보철과당세포위원장에게 주었다.

며칠후에 진행된 회상기연구발표모임에 출연한 방영남동무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백두밀림에서 륙약도작단도 재봉바늘까지도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내면서 강도 일제와 싸워이긴 항일혁명투사들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을 실감있게 해설하였다. 그러면서 항일선렬들이 지녔던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본받아 맡겨진 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할 결의를 다지였다.

그후 공장에 나간 그는 일군들과 로동자들속에서 현장치료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렸다. 이발치료를 받은 로동자들의 반향은 대단했다. 그들은 정말 고맙다, 의사선생들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없겠는가, 제기되는 문제가 있으면 말하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였다.

이때 방영남동무는 이발본뜨기재료가 부족하여 치료활동에서 애로가 제기된다는것을 호소했다.

로동자들은 더 많은 땀으로 증산하여 보내주겠으니 재료는 걱정말라고 하면서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며칠후 많은 량의 이발본뜨기재료를 자동차에 싣고 병원으로 들어서는 방영남, 리혁철동무들을 맞이하는 의료일군들의 마음은 뜨거웠다.

항일선렬들이 지녔던 혁명적신념으로 자신들을 단장약하고 이악하게 노력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

의료일군들의 가슴마다에 이 철리가 더 깊이 뿌리내리였다.

초급당위원회는 의료일군들속에서 자질향상을 잘해나가도록 하는것과 함께 어려운 조건을 타개해나가며 치료활동을 벌려 성과를 거두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활발히 벌렸다.

공화국창건 70돐을 뜻깊게 맞이한 올해 2명의 학위학직소유자들이 배출된것도, 보철과 의사 김정진동무가 어려가지 의료기구들을 창안제작하여 전국의료기구전시회와 도과학기술축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것도 자기 힘에 대한 확신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경험은 각급 당조직들이 회상기학습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실속있게 벌릴 때 모든 사람들을 신념의 강자들로 억세게 키울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김승표

조국해방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싸운 항일혁명선렬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가슴깊이 새겨간다. —대성산혁명렬사릉에서— 리명철 찍음

도덕교양에 큰 힘을 넣어

재령군 래림리당위원회에서 당원들과 농장원들에 대한 도덕교양에 큰 힘을 넣고있다.

도덕교양을 강화하는것이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온 사회에 혁명적이며 건전한 생활기풍을 확립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라는것을 깊이 인식한 리당위원회일군들은 이 사업을 일관성있게 진행해나가고있다.

각종 모임계기와 교양망을 통하여 도덕교양을 강화할데 대하여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대중속에 깊이 체득시키고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일군들이 대중속에 들어가 도덕기풍을 확립하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해설해주고 농장원들속에서 발휘되는 아름다운 소행자료들도 적극 소개선전해주고있다.

얼마전에도 리당위원회의 한 일군은 농장원들이 모인 기회를 리용하여 사상교양사업을 진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모든것이 부족한 때일수록 동지들사이에, 이웃들사이에 서로 돕고 짐심으로 위해주는 미풍이 높이 발양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신 말씀을 심장깊이 새겨주었다.

리당위원회일군들의 꾸준한 교양사업에 의해 당원들과 농장원들은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의 소유자들로 자라나고있으며 집단의 전투력과 단결력도 강화되고있다.

로농통신원 조정옥

실재한 사실을 가지고

분덕군 상팔리당위원회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착취와 압박에 대하여 말로만 들고 전쟁의 시련도 겪어보지 못한 새 세대들이 우리 혁명대오의 주력을 이루고있는 현실은 계급교양의 도수를 더욱 높일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자기 고장에 어린 실재한 자료를 가지고 계급교양사업을 심화시키는것은 그 실효가 매우 크다.

문덕군 상팔리당위원회 일군들이 이 문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계기가 있다.

지난 7월 리당위원장이 리계금교양실을 찾았을 때였다.

출판물보급원이 농장원들앞에서 해설을 하고있었다.

그의 해설을 듣는 리당일군의 생각은 깊었다. 지난 5월과 6월에 들었던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었던것이다.

그러니 농장원들에게 감흥을 크게 줄리 만무하였다.

참관자들의 대부분이 새 세대라는 점을 놓고볼 때 스쳐보낼수 없었다. 결정적인 대책이 필요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의 뇌리에는 그가 상팔리당위원장으로 임명되였다는 소식을 들은 군계급교양관 관장이 찾아와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상팔땅에서 감행한 계급적원쑤들의 만행자료를 들려주던 때의 일이 떠올랐다.

계급적원쑤들은 전 상팔인민학교 교장이였던 김광렬동무가 아이들에게 글을 배워주었다고 하면서 그를 체포하였다. 그리고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지지고 가죽채찍으로 사정없이 때리기도 하였다.

이렇게 보름나마 악착하게 고문하고 회유도 해보았지만 그의 신념을 꺾을수가 없었다.

그러자 원쑤놈들은 그를 학교옆의 나지막한 언덕에 있는 방공호앞으로 끌어냈다.

그가 마지막까지 굴복하지 않자 마을사람들과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무참히 학살하였다.

리당일군은 이런 실재한 자료를 계급교양실에 비치해놓게 하였다.

이렇게 하니 그 실효가 높아졌다.

애국자들의 넋을 대변하여 원쑤놈들의 죄행을 낱낱이 밝가놓는 강사의 목소리는 농장원들의 피를 끓게 하였다.

리당위원회는 계급교양해설모임을 모든 계기와 공정을 리용하여 활발히 벌리고있다.

지난 9월에도 리당위원회에서는 가을걷이전투를 앞두고 작업반별로 계급교양실참관사업을 의의있게 조직하도록 하였다. 원쑤들에게 복수의 철추를 안기는 심정으로 가을걷이전투를 불이 번쩍 나게 다그쳐 끝내게 하기 위해서였다.

실효는 높았다.

상팔리가 가을걷이를 일당겨 끝냈던것이다.

자기 고장에 어린 실재한 자료를 가지고 진행하는 계급교양사업의 실효는 이렇듯 컸다.

본사기자 손영희

본보기, 표준단위창조사업의 중요성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조국의 방방곡곡을 현지지도하시며 21세기의 요구와 사회주의강국의 면모에 어울리는 시대적본보기, 표준들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령도하고계신다.

교육의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평양교원대학과 토지절약형, 로력절약형의 현대적인 강원도양묘장, 금산포것갈가공공장, 문화예술의 대전당인 삼지연관현악단 극장을 비롯하여 이 땅우에 솟아난 거창한 창조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끝없는 로고와 헌신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면불휴의 사색과 심혈속에 삼지연군이 사회주의문명이 응집된 산간문화도시의 본보기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가 세상이 또 한번 놀라고 부러워할 인민의 문화휴식터, 인민의 해양공원으로 전변되고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본보기, 표준창조사업을 중시하는 당의 의도를 깊이 명심하고 이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무슨 일에서나 앞서나가는 본보기, 기준이 있어야 다른 단위들이 따라올수 있습니다.》

한 단위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여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령도의 전기간 한점의 불꽃이 거세찬 불길로 타오르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회주의건설에서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하군 하시였다. 청산리와 리천리, 강선제강소(당시), 창성군과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조선예술영화촬영소와 피바다가극단, 자강도와 함남도를 비롯하여 우리 당력사에 빛나는 수많은 본보기단위들은 당의 의도에 맞게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일본새를 근본적으로 일신시키고 해당 분야, 부문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는데서 선구자적역할을 하였다. 우리 혁명력사는 시범단위를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는것이야말로 혁명을 전진발전시키는데서 매우 효과적이고 위력한 방법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는 오늘 본보기단위를 창조하는 사업의 중요성과 의의는 더욱더 부각되고있다.

본보기, 표준단위를 창조하는것은 무엇보다면저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새로운 기준을 내세우기 위한 절실한 요구이다.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전하여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커다란 변혁이 일어나고 인민들의 사상의식수준과 문화정서적요구가 날로 높아지고있는 오늘의 시대는 보다 새롭고 높은 기준을 요구한다. 급속히 발전하는 현실, 시대적요구에 따라서지 못하고 지난 시기의 수준에 머물러있다면 언제 가도 세계를 앞서나갈수 없다.

오늘 우리 당은 세계적인 경제강국, 과학기술강국, 선진문명국건설이라는 웅대한 투쟁목표를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령도하고있다. 하나의 거리를 일떠세우고 하나의 공장을 건설해도 사회주의문명이 응축된 세계에 자랑할만 한 본보기거리, 세계와 당당히 어깨겨루는 첨단수준의 공장을 일떠세우고 하나의 제품을 생산해도 세계를 압도하고 우리 인민이 사랑하고 즐겨찾는 명상품, 명제품으로 만들어야 한다는것이 우리 당의 뜻이다. 나라의 경제력과 과학기술력, 인민생활을 세계선진수준에 올려세우며 그것을 뚫가하려는 당의 원대한 뜻을 받들자면 시대에 따르는 새로운 기준을 내세우는 사업을 선행시켜야 한다. 그래야 누구나 당이 바라는것이 어떤것인가를 똑똑히 알고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을 그 높이에 올려세우기 위해 투쟁할수 있다.

본보기, 표준단위창조사업은 바로 당의 구상과 의도가 집중적으로 구현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우리 당이 내세우는 본보기, 표준단위들에는 계속혁명, 계속전진하는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과 념원이 담겨져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지난 7월 삼지연군 중흥농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시대에 따르는 새로운 기준이 나와야 한다고, 삼지연군을 농산작업의 종합적기계화에서 제일 앞선 나라들의 수준을 뚫가하는 본보기군, 표준군, 시범단위로 꾸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해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가르치심은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농민들을 힘든 농사일에서 완전히 해방할데 대한 당정책의 진수와 높은 요구를 깊이 새겨준 강령적지침이다.

이것은 본보기, 표준을 창조하는것이 당의 구상과 의도가 반영된 시대적기준을 내세우는 사업,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선차적사업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본보기, 표준단위를 창조하는것은 다음으로 사회주의건설의 전반사업을 최단기간내에 근본적으로 변혁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본보기, 표준을 창조하는 목적은 단순히 현실발전의 요구, 시대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내세우는데만 있는것이 아니다. 시대의 전형, 온 나라가 본받아야 할 모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따라배우도록 함으로써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변혁을 가져오자는데 궁극적목적이 있다.

사실 모든 부문의 사업을 근본적으로 변혁한다는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제기되는 무수한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고 전반사업을 최단기간에 새로운 높이에 올려세우자면 옳바른 방법론이 있어야 한다. 본보기, 표준단위창조과정은 그 표술과 방법론을 마련하는 과정이다.

본보기, 표준단위를 꾸리기 위한 투쟁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귀중한 경험을 가르쳐준다. 본보기단위를 창조하고 참관하는 과정을 통하여 사람들은 현시기 당이 바라는 높이를 깊이 체득하게 되고 자기 부문, 자기 단위를 본보기단위의 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한 사업의 규모와 순차별과업에 대해서도 파악하게 되며 거기에 드는 자금과 자재기준도 세울수 있다. 특히 본보기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투쟁기풍과 일본새를 보면서 자기들도 능히 할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게 되고 그 단위를 따라앞서려는 분발심과 경쟁열의도 높아지게 된다.

본보기, 표준단위의 창조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할뿐아니라 짧은 시일내에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사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절실히 요구되는 일군들과 기술인재, 기능공문제도 원만히 해결할수 있게 한다. 례를 들어 어느 한 공장을 생산공정과 경영관리의 현대화실현에서 본보기가 될수 있게 잘 꾸려놓는다면 그 과정을 통하여 높은 정책적안목과 기술실무수준, 배짱을 겸비한 일군들과 기술자들, 기능공들을 양성해낼수 있을것이며 그들에게 의거하여 본보기단위에서 창조된 모범을 해당 부문과 온 나라에 빨리 보급할수 있을것이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본보기, 표준단위를 창조하는 사업이야말로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이 사업을 실속있게, 일관하게 밀고나가야 할것이다.

홍진혁

내 나라 제일로 좋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 국가와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사회주의이며 우리 인민의 생명으로, 생활로 깊이 뿌리내린 불패의 사회주의이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희한한 과일대풍을 안아온 과수의 고장 황해남도 과일군을 찾으시였다.

이날 건설의 무릉도원마냥 펼쳐진 드넓은 과원을 둘러보시는 그이의 눈가에 하나의 구호가 비껴들었다.

《내 나라 제일로 좋아!》

땅이 꺼지게 열매가 주렁진 사과나무들과 더불어 의미깊게 안겨드는 구호를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저 구호가 정말 좋다고, 저 구호는 우리 나라에만 있는 구호이라고 긍지높은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진정 사회주의 내 조국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것을 책에서가 아니라 실체험을 통해서 간직한 우리 인민의 절절한 사상감정이 그대로 어린 글발이다.

눈부리 아득히 펼쳐진 청춘과원도, 만선의 배고동소리도, 일떠서는 모든 기념비적창조물들도 인민의 기쁨, 인민의 행복을 노래하는 나라, 누구나 마음껏 일하고 배우며 인민의 건강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는것이 례사로운 일로 되고있는 사회주의 우리 조국과 같은 나라가 이 세상 어디 또 있으랴.

하다면 갈수록 커만 가는 인민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것인가.

몇해전 라선시피해복구전투를 현지에서 지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하늘처럼 여기신 우리 인민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따뜻이 보살펴주는것은 조선로동당의 응당한 본분이라고, 우리는 인민을 위한 일에서 만족을 몰라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그러시고는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변함없이 한마음 우러러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사는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민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이런 훌륭한 인민의 믿음과 기대를 한순간도 잊지 말고 인민의 행복한 앞날을 위하여 헌신분투해야 한다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남기신 우리 인민을 수령님들을 모시듯 더 잘 받들어나가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세상에는 인민을 위한다는 정치가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 원수님처럼 인민을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안으시고 멸사복무의 길을 이어가시는 그런 령도자가 있던가.

그렇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고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영원히 승승장구할것이며 인민이 부르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의 노래소리는 영원한 조선의 노래, 우리 인민의 심장의 웨침으로 이 세상 끝까지 더 높이 울려갈것이다.

오영심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발휘하며 신심드높이 내달린다

황해남도물길 2단계공사장에서

련속공격전으로 저수지언제건설 85%계선 돌파

평양시려단 일군들과 돌격대원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평양시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착공후 현재까지 117만여㎥의 방대한 토량을 처리하고 5만 6 000여㎥의 장석공사를 진행하여 총공사량의 85%계선을 돌파하는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것은 굴함없는 공격정신으로 막아서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며 투쟁한 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불굴의 정신력이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입니다.》

황해남도물길 2단계공사를 다그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리정남, 리영철동무를 비롯한 려단일군들은 더 무거운 짐을 스스로 걸머지고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결사관철하기 위해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막아서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가며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였다.

평양시가 당정책관철의 기치를 들고 전국의 앞장에서 나가기를 바라는 당의 믿음을 심장에 새긴 려단일군들은 높이 세운 공사목표를 무조건 수행하기 위한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을 펼치였다. 려단에서는 언제건설장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올해중에 도달하여야 할 대상별토량 및 언제기초굴착량과 장석공사량을 명백히 제시하였다. 일군들은 언제건설을 립체적으로, 섬멸적으로 하기 위해 근 20대의 화물자동차들과 굴착기를 공사장에 집중배치하였다. 이와 함께 장석공사를 힘있게 내밀기 위한 돌격휘전투를 립체적으로 작전하고 내밀었다.

일군들은 모든 대대들에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였다. 일군들은 창조와 혁신의 가장 큰 예비는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시키는데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전투장마다에서 침입식정치사업을 벌리면서 돌격대원들의 혁명열, 투쟁열을 더욱 고조시켰다.

2단계공사를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무조건 완공하자, 돌격대원들모두가 이런 각오밑에 분발해나섰다. 언제건설전투장은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졌다. 돌격대원들의 억센 기상이런듯 붉은기들이 펄펄 휘날리고 화선식선동의 북소리가 힘차게 울려퍼지는 속에 공사장 어디서나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운전사들은 전화의 나날 포탄이 쏟아지는 속에서도 전시수송을 보장하던 수송전사들처럼 련속공사장에 흙을 실어날랐고 형제산구역, 선료구역대대의 돌격대원들은 번개같은 일솜씨로 일매지게 돌들을 척척 쌓아나갔다.

돌격대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언제는 하루가 다르게 솟구쳐올랐다.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도로보수를 앞세웠다. 일군들은 운반실적이자 언제공사실적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나갔다. 화물자동차에 걸리는 부하를 최대한 줄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로력조직을 짜고들어 도로보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게 하였다. 결과 운반실적이 종전보다 2배로 뛰여올랐다.

그들은 성과가 오를수록 자력자강의 위력은 곧 과학기술의 위력이라는것을 명심하고 더 많은 기술혁신안들을 창안도입하기 위해 전투조직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대대들에서는 전진법에 의한 다짐방법을 비롯한 여러가지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여 중심강토다지기와 성토작업속도를 1.5배로 높이면서도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할수 있게 언제건설마감단계에서 질을 철저히 보장하였다. 일군들과 운전사들은 한뜻으로 화물자동차들이 드나들면서 흙을 운반하면 더 많은 물동량을 나를수 없는것은 물론 수평고루기와 다지기도 동시에 진행할수 없다는것을 포착하고 즉시 합리적인 운행방법을 받아들이였다. 그리하여 여러대의 화물자동차들이 동시에 드나들면서 흙을 부리게 되였다. 결과 화물자동차들의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면서 많은 물동량을 나를수 있게 되였고 동시에 수평고루기와 다지기를 진행하여 공사속도를 높일수 있었다.

대대들에 나간 려단일군들은 물전기제만가동보장에 필요한 부속품들을 제때에 해결해주고 운전사들과 함께 운행하면서 그들의 사기를 높여주었다.

려단에서는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사회주의경쟁요강을 보다 세분화하여 잘 만들어 대대들에서 개인별실적위주가 아니라 계획수행률을 우선시하도록 하였다. 결국 집단적혁신의 열풍이 불아쳐 대대별경쟁이 활발히 벌어지게 되였고 돌격대원들의 승벽심도 현저히 높아졌다.

중구역대대에서는 교대전 물전기제들의 점검보수체계를 철저히 세워 화물자동차와 굴착기의 가동률을 높이는것과 함께 합리적인 공법들을 받아들여 성과를 이룩해나갔다. 동대원구역대대에서는 앞선 대대들의 좋은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실적을 올리였다.

후방사업은 곧 사회주의수호전이라는것을 명심한 려단의 일군들은 모든 대대들에서 후방기지들을 먼듯하게 꾸리고 축산을 대대적으로 내밀도록 하여 돌격대원들이 그 덕을 톡톡히 보게 하였다.

당정책결사관철의 정신으로 떨쳐나선 평양시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언제완공의 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본사기자

당앞에 다진 맹세를 지켜

함경북도려단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천리마의 대진군으로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한 전세대들의 투쟁정신을 이어 누구나 시대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는 만리마선구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함경북도려단에서 300여m의 잠관공사를 맡았을 때였다.

이 공사는 1만 8천여㎥의 토량을 처리하고 잠관콩크리트치기를 진행해야 하는 방대한 공사였다. 로력과 자재, 양수설비를 비롯하여 모든것이 부족하고 긴장한 조건에서 굴착작업을 진행한다는것은 말처럼 쉬지 않았다.

일부 일군들의 얼굴에는 난감해하는 기색이 보였다.

이때 당의 뜻대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투쟁해나간다면 두려울것도 없고 못해낼 일도 없다. 우리 힘을 믿고 떨쳐나서자고 하는 려단정치부장의 목소리가 힘있게 울렸다. 일군으로부터 돌격대원에 이르기까지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으로 투쟁한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배짱을 가지고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려단장을 비롯한 일군들은 발동발전기와 양수설비들을 기동성있게 배치하여 어떤 조건에서도 공사를 중단없이 내밀수 있는 만단의 전투준비를 갖추었다.

건설장이 무굴무굴 끓어번졌다. 그런데 기세좋게 나가던 려단의 앞길에 뜻밖의 난관이 조성되였다. 이들의 의지를 시험하려는듯 작업장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던것이다. 순식간에 전투장은 갑랑판으로 변하였으며 어떤 구간에서는 무릎까지 물이 차올랐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암반까지 나타났다.

하지만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순간도 전투를 멈추지 않았다. 젖은 흙을 지고 달리다나니 온몸이 젖어들고 온통 물주머니가 되였지만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돌격대원들은 하루계획을 수행하기 전에는 전투장을 떠나줄 몰랐다.

한쪽에서는 차오르는 물속에서 돌격대원들이 함마를 휘두르고 다른쪽에서는 질통과 마대를 메고 달리는 돌격대원들로 하여 작업장은 싸우는 격전장을 방불케 하였다.

함마로 정대를 련속 조져대는 돌격대원들,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며 질통을 지고 달리는 정치일군들, 건설물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하여 온 전투장을 발이 닳도록 휘어다니며 기술지도에 어념이 없는 시공일군들…

현장방송기재에서 울려나오는 《사회주의전진가》의 노래소리가 돌격대원들의 열의를 더한층 북돋아주었다.

산악이 막으면 측풍처 넘고
격랑이 막으면 뚫고헤친다
번영의 모든 꿈 이룩해가는
우리를 누가 막으랴
…

대대별사회주의경쟁의 열풍속에 김책시, 온성군대대를 비롯한 려단의 모든 돌격대원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힘찬 전투를 벌려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황해남도물길 2단계공사를 기어이 완공하려는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짧은 기간에 총굴착량의 50% 이상을 해제끼는 혁신이 창조되였다.

이들은 당앞에 다진 맹세를 지켜 먼 후날 오늘을 떳떳이 추억할수 있게 하루하루를 위훈으로 수놓아가고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금 우리 인민들의 투쟁열의는 대단히 높으며 여기에 일군들의 대담하고 과학적인 작전과 능숙한 지휘, 이신작칙의 일본새가 안받침되면 우리에게 점령 못할 요새도 뚫지 못할 난관도 없습니다.》

집단적혁신의 불길드높이 평안북도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과학적인 작전과 완강한 실천력으로

평안북도려단 일군들의 사업에서

지난 한달동안에만도 려단일군들은 주별, 일별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공정별에 따르는 전투조직과 지휘를 과학적으로 하여 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비결은 일군들의 대담하고 과학적인 작전과 능숙한 지휘, 이신작칙의 일본새가 안받침된데 있다.

돌격대원들의 열의가 비상히 높아진데 맞게 려단일군들은 목표를 높이 세우고 섬멸전의 방법으로 맡은 대상공사를 본때있게 내밀었다.

려단에서 력량을 집중하여 물길굴공사를 진행할 때였다.

대상건설을 짧은 기간에 끝내자면 공사속도를 종전보다 1.5배로 높여야 하였다. 그런데 로력과 설비를 비롯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현실은 정황이 백가지이면 방도도 백가지를 척척 내놓을줄 아는 지휘관들을 요구한다.

일군들은 이런 립장에서 공사속도와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 대책들을 세워나갔다.

대대들의 특성에 맞게 전투과업을 명백히 준 일군들은 어떤 조건에서도 맡은 과제를 계획대로 수행하도록 요구성을 높이였다. 특히 지난 시기 물길굴공사에서 이룩된 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여 물길굴뚫기와 버력처리하는 단위들을 고정배치하였다. 매 대대들이 자기 단위의 특성에 맞는 특기를 가지고있기때문이였다.

대표적인 실례로 물길굴뚫기에서 다른 대대들보다 실적을 올리고있는 풍년광산대대가 있는가 하면 버력처리에서 앞선 단위들이 있었던것이다.

이에 기초하여 굴진과 콩크리트피복공사, 버력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단위들을 고정배치하게 하였다.

좋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우선 작업이 분산되지 않고 집중적으로 진행되니 시간당 실적을 올릴수 있었다. 또한 매 돌격대원들이 자기 설비를 눈동자처럼 사랑하고 한가지 기술이라도 더 배우기 위하여 아글타글 노력하였다.

일군들은 공사의 질보장문제에도 응당한 관심을 돌렸다.

지난 어느날 콩크리트피복공사를 한 어느 한 구간에 기포가 생기는 일이 발생하였다. 따져보니 일부 작업조들이 공사속도에만 치중하면서 진동다짐을 소홀히 한데 있었다.

이 사실을 놓고 려단일군들의 생각은 깊었다.

공사에서 속도도 중요하지만 질보장문제는 더욱 중요하다. 건설물의 질은 그들의 깨끗한 량심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볼수 있다. 하지만 하나하나의 건설물에 땅을 밟으는 물길건설자의 깨끗한 량심이 비끼게 된다는 애국심을 대중의 가슴속에 새겨주지 못하지 않았는가.

자책되는바가 컸다.

려단일군들은 대대들을 맡고나가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질보장은 물길건설자의 량심에 달려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일해나가도록 화선식정치사업을 드세게 벌리였다.

모든 대대들에서 새 기록, 새 기준을 돌파하기 위해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그리고 질보장과 관련하여 제기될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앞질러가며 대책을 세웠다.

특히 현장지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면서 앞선 대대들에 대한 보여주기사업을 자주 조직하였다.

결과 온 공사장에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현실은 일군들이 자기 단위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에 서서 과학적인 작전과 완강한 실천력으로 밀고나갈 때 혁신을 일으킬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글 특파기자 박 철
사진 본사기자 한 광 명

결사의 투쟁과 위훈의 7일간

평안남도려단 일군들과 돌격대원들

어느날 려단이 맡은 물길굴공사장에 긴급한 정황이 조성되였다.

뜻밖의 큰물로 하여 물길굴전투장들이 침수되고 병실들과 도로들이 파괴되였다. 퍼내야 할 물량만도 1만 7 000여㎥나 되였다.

어떻게 할것인가.

부족되는 로력과 자재 등 막아서는 애로와 난관은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누구도 선뜻 하게 책을 내놓지 못하고있었다. 그때 려단장이 침수된 갱들을 복구하면서 굴화장공사를 동시에 밀고나가자는 안을 내놓았다. 그러자 일부 사람들속에서 로력이 긴장한 조건에서 두가지 일을 동시에 밀고나가는것은 어려울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였다.

조건타발을 하면 언제 가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일군들이 난관앞에 주저앉을것이 아니라 문제해결의 중심고리를 찾아쥐고 비약의 불바람을 일으키는 거센 밑불이 될 때 점령 못할 요새란 있을수 없다. …

심금을 울리는 려단정치부장의 말에 모두가 자신들을 돌이켜보았다.

조건이 불리할수록 대담한 작전과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돌파구를 열어나가자.

이런 각오로 그들은 침수된 갱들을 복구하는것과 함께 공사를 동시에 밀고나가기 위한 해결방도를 찾아나갔다. 사색을 이어가며 서로의 지혜를 합쳐놨다.

그때 시공파장이 새로운 발기를 내놓아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다.

침수된 갱들에서 한쪽으로 려단의 양수기들을 총동원하여 물을 퍼내면서 다른쪽으로는 고무배를 타고들어가 착암을 들이대자는것이였다. 이와 함께 로력조직을 짜고들어 갱복구에 력량을 집중하면 얼마든지 공사와 복구전투를 동시에 밀고나갈수 있었다. 이렇게 되면 보름이상 걸려야 할 갱복구를 한주일동안에 끝내면서도 공사를 일정계획대로 밀고나갈수 있었다.

모두가 지지해나섰다.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소리가 높이 울리는 속에 힘찬 전투가 벌어졌다. 증산군, 문덕군대대에서는 갱복구전투를 벌리면서도 련속천공, 련속발파로 공사속도를 높이였고 이에 뒤질세라 순천시, 정천군, 대동군대대에서도 기세를 올리였다. 그리하여 한주일동안에 침수된 갱들을 복구하고 일정계획대로 공사를 밀고나갈수 있게 되였다.

조건이 불리할수록 물러서지 않고 대담한 작전과 완강한 실천력으로 공사를 내밀고있는 이곳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투쟁에 의해 전투장마다에서는 련일 새로운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특파기자

높은 공사속도를 안아온 비결

남포시려단 일군들의 사업에서

남포시려단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과감한 투쟁을 벌려 취수탑과 배수탑공사를 짧은 기간에 완공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특히 1년이상 걸려야 한다던 취수탑공사를 단 7개월만에 결속하는 놀라운 공사속도를 창조하였다. 이 성과는 혁신적인 방도들을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는데서 찾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전적의 돌파구를 열어제낀 려단일군들의 진취적인 일본새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기적은 결코 저절로 일어나는것이 아니며 기적을 낳는 어머니는 대중의 앙양된 정신력이라는것을 명심하고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켜야 합니다.》

대형철판휘틀에 의한 미끄럼식공법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공사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는 담보를 마련한것을 놓고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사실 려단에는 취수탑, 배수탑을 건설해본 경험도 없었고 설비와 자재도 부족하였다. 난관은 그뿐이 아니였다. 나무휘틀을 제작하여 콩크리트치기를 해보았지만 엄청나게 무거운 콩크리트혼합물의 중량으로 휘틀이 손상되여 공사를 하기 어려웠다. 이대로 주저앉을것인가.

그때 일군들은 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적지혜와 힘을 발양시키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한 당의 뜻을 되새겨보았다. 신심이 용솟음쳤다.

일군들은 대중적혁신운동의 불길,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게 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공세적으로 들이대였다.

하루빨리 물길공사를 완공하여 당에 승리의 보고를 드리자.

이런 일념으로 충만된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드높은 열의는 마른줄 모르는 샘과도 같이 공사를 다그칠수 있는 혁신적인 안들을 련속 쏟아냈다.

휘틀제작에서부터 대담하고 통이 큰 방법이 창안되였다. 그것은 나무휘틀대신 대형철판휘틀을 제작하여 미끄럼식공법으로 련속콩크리트치기를 진행하는 대담한 선택이였다.

일군들은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발맞추어 휘틀제작에 필요한 수십㎥의 철판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여 공사를 본격적으로 내밀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다.

여러가지 합리적인 안들을 받아들여 공사속도를 부단히 높인것 역시 좋은 실례이다.

미끄럼식공법으로 련속콩크리트치기를 진행하자니 휘틀을 들어올릴수 있는 쟈끼가 필요하였다. 처음에는 4개의 쟈끼로 해보았는데 휘틀자체중량이 매우 무겁고 콩크리트혼합물이 휘틀에 들어붙는것으로 하여 어림도 없었다.

일군들은 이 문제도 대중속에 들어가 해결방도를 찾았다. 역시 대중의 지혜와 힘은 무궁무진하였다. 쟈끼수를 더 늘이고 휘틀안면에 그리스를 바른 다음 콩크리트치기를 들이댄다면 능히 휘틀을 들어올릴수 있다는것이였다.

결과는 좋았다. 24개의 쟈끼가 육중한 휘틀을 단번에 들어올렸던것이다. 그리하여 공사속도를 보다 높일수 있게 되였다. 또한 콩크리트치기에 첨가제를 받아들여 휘틀을 들어올리는 주기를 당김으로써 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하면서 공사를 최단기간내에 결속할수 있는 지름길을 열어놓았다.

이뿐이 아니다. 활차를 리용하여 물동량을 나를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중기가 없는 조건에서도 공사를 빠른 속도로 진척시킬수 있게 한것도 일군들이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는 과정에 이룩한 성과였다. 이들은 배수탑공사도 본때있게 내밀어 빠른 기일에 결속하였다.

공사속도는 무엇에 비례하는가. 경험은 공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당이 제시한 전투적과업을 기어이 수행하려는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불굴의 정신력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김 성 진

올해농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하자

낟알털기를 끝낸 단위가 늘어난다

운전벌안의 협동농장들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는 운전벌안의 낟알털기전투장들이 올해농사를 결속하기 위한 투쟁으로 들끓고 있다.

최단기간에 올해농사를 결속할 목표밑에 련속공격전을 들이대고있는 이곳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낟알털기가 마감단계에서 추진되고있는 속에 수십개 작업반이 낟알털기를 끝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부문에서는 과학적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농사일을 책임적으로 하여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여야 합니다.》

올해농사를 빛나게 결속하여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자.

운전군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누구나 이런 결의로 가슴끓이며 마지막돌격전을 힘차게 벌려나갔다.

군일군들은 농장들에서 올해의 불리한 기상조건으로 지난해보다 며가을을 한주일이상 늦게 시작한 조건에 맞게 짧은 기간에 낟알털기를 끝내도록 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이와 함께 군일군들은 들끓는 포전에 전투좌지를 정하고 제기될수 있는 문제들을 포착하는 즉시 대책을 세워나갔다. 그리고 농업근로자들속에 깊이 들어가 함께 일하면서 대중을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켰다.

운하협동농장 제2작업반의 탈곡장에서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낟알털기를 진행한 군당책임일군의 이신작칙은 열백마디의 말을 대신하는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되였다. 협동벌로 달려나간 기관, 기업소일군들과 근로자들도 농업근로자들과 한전호에 선 심정으로 사회주의농촌을 로력적으로, 물질적으로 적극 도와주었다.

이에 고무된 농업근로자들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세대 제1선참호를 지켜선 높은 책임감을 안고 맡겨진 전투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해나갔다.

운하, 보석, 가산협동농장을 비롯한 평도업저단위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황금벌의 력사를 빛내여갈 불같은 일념으로 낟알털기전투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였다.

운하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우리 당을 받들어 받드는 애국농민의 기개를 떨칠 카오밑에 날마다 전투성과를 확대해나갔다.

농장일군들은 높이 세운 일정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할수 있게 조건보장사업을 앞세우면서 로력조직과 총화평가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대중의 열의를 높여주었다.

포전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나래치고 집단주의적경쟁열풍이 세차게 일고있는 속에 농장의 낟알털기실적은 시간이 다르게 뛰여올랐다.

보석협동농장에서 운반수단들의 리용률을 최대로 높이는것과 함께 탈곡기들의 만가동보장에 큰 힘을 넣어 능률적인 농기계들을 대대적으로 리용할데 대한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해나갔다.

농장에서는 이동수리조직과 설비점검을 짜고들어 탈곡기마다 만가동, 만부하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 륜전기계들을 총집중하여 일정계획을 120%로 넘쳐 수행하였다. 낟알털기실적이 부쩍 오르고있는 속에 제1작업반에서 제일먼저 전투를 결속한데 이어 다른 작업반들에서도 낟알털기를 앞당겨 끝내는 성과들 거두었다.

가산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도 쌀은 곧 사회주의라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귀중한 낟알을 한알도 허실없이 거두어들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이들은 벼단운반과 낟알털기과정에 벼알이 떨어지거나 북데기속에 섞여 허실되지 않도록 작업후에도 현장을 다시한번 살펴보는것을 습성화하였다.

분조관리제안에서의 포전담당책임제의 생활력이 높이 발휘되고 드세찬 집단적경쟁열풍속에 군안의 협동벌 어디서나 혁신의 새 소식들이 련속 전해졌다.

운하협동농장 제2작업반, 동삼협동농장 제1작업반, 보석협동농장 제1작업반들에서 전투승리의 기발이 남먼저 휘날린데 이어 군안의 다른 수십개 작업반들이 낟알털기를 성과적으로 결속하였다.

이 단위들을 따라잡기 위한 맹렬한 추적전이 벌어졌다.

포전담당책임제의 생활력이 높이 발휘되고있는 북일, 청정협동농장들에서 높이 세운 낟알털기일정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실적이 오를수록 농장들에서는 여러 계기를 통하여 앞선 단위들의 경험을 적극 일반화하면서 당면한 낟알털기전투에서 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해나갔다.

동삼협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농장의 낟알털기전투장들에도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이 나래쳤다.

이곳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뜻깊은 올해농사를 빛나게 결속하여 나라의 쌀독을 가득 채우는데 적극 이바지할 한마음안고 밤낮이 따로 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려나갔다.

결과 군에서는 낟알털기를 지난해보다 앞당겨 끝낼수 있는 전망이 열리게 되였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높이 발휘되는 속에 군에서는 낟알털기전투를 결속한 단위들이 경쟁적으로 늘어나고있다.

본사기자 방영진

탈곡기리용률을 높여

배천군에서

배천군에서 낟알털기를 마감단계에서 내밀고 있다.

이곳 일군들은 자기 군의 농사를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전투작전과 지휘를 빈틈없이 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농업부문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농사를 잘하여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것입니다.》

군에서 낟알털기를 앞당겨 끝내기 위해 백수십대의 이동식벼종합탈곡기를 더 생산하여 적극 리용한 사실을 놓고보자.

군에서는 올해에 지난해보다 훨씬 앞당겨 농사를 결속할 높은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그 준비정형을 료해하던 군책임일군들의 마음은 개운치 못하였다.

군안의 모든 작업반들에서 리용할수 있는 충분한 수량의 이동식벼종합탈곡기가 마련되여 있지 못하였기때문이였다. 물론 군에서는 지난해 수백대의 이동식벼종합탈곡기를 생산하여 포전에서 리용함으로써 낟알털기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것을 놓고 일부 일군들속에서는 올해 낟알털기도 문제없다고 생각하고있었다.

그러나 책임일군들의 생각은 달랐다.

이동식벼종합탈곡기를 리용하는 작업반들과 그렇지 못한 작업반들의 낟알털기실적에서는 현저한 차이를 가져올수 있다.

그러면 방도는 무엇인가.

두말할것없이 능률높은 이동식벼종합탈곡기를 많이 만들어 군안의 모든 작업반들에 차례지도록 하여 낟알털기능력을 높이는것이였다.

이렇게 판단한 책임일군들은 군안의 모든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을 이동식벼종합탈곡기생산전투에로 불러일으켰다. 이 사업을 조직하면서 중시한것은 군일군들이 현장지도를 실속있게 하도록 하는데 힘을 넣은것이다.

이동식벼종합탈곡기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단위들은 책임일군들이 담당하고 농장들에는 능력있는 군급기관 일군, 기술자, 기능공들이 내려가 이동식벼종합탈곡기제작을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군농기계작업소, 군농기구공장을 비롯한 해당 단위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탈곡기제작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가 벌어졌다.

이때 군책임일군들은 수시로 전투현장에 나가 로동자들과 일도 같이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기동적으로 세워주면서 대중을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은 능률높은 이동식벼종합탈곡기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데 올해농사를 승리적으로 결속할수 있는 방도의 하나가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이동식벼종합탈곡기제작에 여러가지 혁신적인 안들을 받아들이며 날마다 성과를 확대해나갔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백수십대의 이동식벼종합탈곡기생산은 빠른 시일내에 결속되게 되였다.

결과 군안의 모든 작업반들에서는 이동식벼종합탈곡기들의 동음이 높이 울려퍼졌고 낟알털기실적은 계속 뛰여올랐다.

본사기자 리충일

로력예비를 어디서 찾았는가

황주군 구포협동농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긴장한 로력문제를 풀어야 올해농사를 빨리 결속하고 다음해 농사차비도 잘할수 있다. 이것을 명심하고 황주군 구포협동농장 일군들은 적은 로력으로 작업능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들을 받아들여 군적으로 제일먼저 낟알털기와 수매, 보관갈이를 끝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임무수행에 전심전력하며 사업을 깊이 연구하고 파고들어야 옳은 방법론을 찾을수 있고 기발한 착상도 할수 있으며 사업을 통이 크게 작전하고 박력있게 내미는 혁명적기질도 갖출수 있습니다.》

로력예비를 찾는데서 일군들이 중시한 문제는 기계화작업반에서 낟알털기를 와닥닥 끝내는것이였다.

농장에서는 올해농사결속을 잘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를 낟알털기를 열흘동안에 끝내는데서 찾았다. 그러자면 낟알털기속도를 지난해보다 2배이상 높여야 하였다. 많은 로력이 요구되였다.

목표를 세우는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현실성있는 방도를 찾아야 혁신을 창조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농장일군은 로력문제를 놓고 토론을 거듭하였다. 품을 들여도 탈곡기를 만가동시키면 있는 로력으로 얼마든지 낟알털기실적을 높일수 있다는 문제에 초점이 집중되였다. 지난해 농장적으로 전기사정이 긴장하여 많은 경우 발동발전기로 탈곡기를 가동시키였다. 그런데 발동발전기를 리용할 때면 능력이 낮아 낟알털기만 기계로 하고 정선작업은 따로 하여 많은 로력을 들이면서도 20일동안 전투를 벌렸다. 그러나 제5, 7작업반에서는 탈곡기를 개조하여 정선작업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로력을 절반으로 줄이면서도 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하여 열흘동안에 낟알털기를 결속하였던것이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모두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들을수록 긍정할만 하였다. 보는 작업반에서 탈곡기를 개조하면 결국 많은 로력예비를 찾아내는셈이였다.

농장일군은 기계화작업반에서 탈곡기개조에 필요한 부속품과 자재들을 보장할것을 결심하고 직접 떠밀어주었다. 그리고 제5작업반을 본보기단위로 내세우고 작업반마다 나가 탈곡기개조를 짧은 기간에 끝내기 위한 대책들을 세워주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며칠동안에 모든 작업반에서 탈곡기개조를 끝냄으로써 긴장한 로력문제를 풀고 낟알털기를 제기일내에 끝내게 되였다.

파고들수록 좋은 방도는 나오기마련인것이다.

가을걷이가 한창이던 지난 어느날이였다. 벼단찌들이기와 낟알털기를 동시에 내밀기 위한 방도를 찾기 위해 론의를 거듭하던 일군들은 제7작업반의 지난해농사경험을 놓고 생각을 깊이하게 되였다. 작업반에서는 운반속도를 때로 높이면서도 낟알털기에서 혁신을 일으켰다. 비결은 운반조직을 짜고든데 있었다. 작업반에서는 포전이 진조전에 맞게 논판에 있는 벼단을 모두 소달구지로 도로까지 나르면 뜨락또르가 탈곡장까지 운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달구지들을 새로 만들거나 개조하여 그 어떤 포전에서도 쉬임없이 오갈수 있게 하였다.

결국 종전보다 절반밖에 안되는 로력을 싣는 작업에 동원하면서도 운반속도를 높일수 있었던것이다. 그래서 작업반에서는 적지 않은 로력을 낟알털기에 돌려 실적을 높여나갈수 있었던것이다.

따져볼수록 로력문제를 풀기 위한 좋은 방도였다. 농장일군은 달구지개조와 생산에 필요한 모든 자재들을 농장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 그리고 현지에 나가 소판리공들과 뜨락또르운전수들의 열의를 적극 높여주었다. 그리하여 벼단찌들이기를 20일동안에 결속하게 되였다.

일군들이 포전에 나가 혁신적안목으로 현실을 대할 때 높이 세운 전투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로력예비를 얼마든지 찾아 성과를 거둘수 있다. 바로 이것이 농장일군들이 찾은 교훈이다.

본사기자 정영철

전야에 울려퍼지는 만가동의 동음

강서구역 약수협동농장에서

강서구역 약수협동농장에서 낟알털기를 짧은 기간에 끝냈다.

그 비결의 하나는 교대전 탈곡기정비사업을 잘 짜고든데 있다.

농장일군들은 낟알털기실적을 올리기 위해 탈곡기를 만가동시키는데 주되는 힘을 넣었다.

특히 교대전 탈곡기정비를 잘하는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였다. 탈곡기들을 만가동시켜 낟알털기속도를 높이는데서 소홀히 할수 없는 문제였던것이다.

탈곡기가동률이 높을수록 낟알털기실적이 오른다.

하기에 농장일군들은 모든 작업조들이 교대전에 탈곡기정비를 잘하여 다음작업조들에 넘겨주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탈곡기의 상태는 교대하기전 작업조가 더 구체적으로 알고있는것만큼 기대정비를 잘하여 다음조에 넘겨주어야 낟알털기속도를 보다 높일수 있었다.

일군들은 모든 농장원들이 탈곡기를 단순히 낟알털기기계가 아니라 올해농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전투기술기재로 여기고 정비를 깐지게 하도록 교양사업을 짜고드는 한편 예비부속품들을 충분히 보장해주었다.

이와 함께 설비관리를 책임적으로 잘하고있는 작업조들을 적극 내세워주면서 총화사업도 엄격하게 진행하였다.

결과 농장의 모든 작업반, 분조들에서는 탈곡기정비를 철저히 하는 기풍을 세워 탈곡기의 만가동을 보장하면서 낟알털기실적을 부쩍 올릴수 있었다.

본사기자

개천시 룡진협동농장에서

개천시 룡진협동농장에서 탈곡기마다 만가동을 보장하여 낟알털기실적을 높이였다.

기계화비중을 높일데 대한 당정책을 받들고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필요한 대수의 이동식탈곡기들을 더 마련하는것과 함께 수리정비에도 힘을 넣었다. 그리하여 농장의 탈곡기들의 능력은 지난해보다 더 높아졌다.

농장일군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뜻밖의 사정으로 전력공급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낟알털기를 계속 진행할수 있도록 필요한 설비들을 충분히 갖추어놓게 하였다. 또한 작업현장에 자주 나가 탈곡기들의 가동상태를 알아보고 부속품을 비롯한 결핍한 문제들을 풀어주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다.

교대전 기대정비를 잘하는것이 탈곡기의 만가동을 보장하는데서 중요하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작업반초급일군들은 교대전 설비점검을 깐지게 하고 다음교대에 인계해주도록 요구성을 높이였다.

작업반들에서는 설비관리에서 발휘되고있는 소행들을 소개일반화하는 사업도 잘하였다.

이동수리조활동이 적극화되고 농장원들의 책임성이 높아가는 속에 농장에서는 낟알털기를 앞당겨 끝내게 되였다.

본사기자

집중적으로 벌어진 수송전투

영광군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가을에 알곡수확고랑정사업을 정확히 하고 그에 기초하여 알곡생산계획수행을 평가하며 알곡수매사업도 조직하여야 합니다.》

영광군에서 혁신이 창조되였다. 군안의 협동농장들에서 낟알털기를 하는족족 국가알곡수매를 따라세움으로써 지난해보다 농사결속을 훨씬 앞당겨 할수 있게 되였다. 어떻게 이룩된 성과인가.

군일군들은 올해의 마지막영농전투를 작전할 때 낟알털기와 국가알곡수매를 다같이 내미는 문제에 깊은 주의를 돌리였다. 지난해 이 사업을 원만히 하지 못하여 일부 농장들에서 농사결속을 빨리 하는데 지장을 주었던것이다. 이들은 이 사실을 그저 교훈으로만 새겨두지 않았다.

농사결속을 빨리 할수록 낟알허실을 막고 알곡수확고를 높일수 있다. 당이 제시한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수행하자면 지난해의 편향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일군들은 결심을 단단히 품고 혁신적안목으로 통이 크게 일판을 펼치였다. 이들은 수매와 관련한 사업을 종전처럼 농장들에만 맡길것이 아니라 군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진행하기로 하였다. 올해에 수십대의 이동식탈곡기를 생산하여 군적인 낟알털기능력이 훨씬 높아진 조건에서 이렇게 하면 국가알곡수매기일도 종전보다 앞당길수 있었다. 물론 여기에 필요한 조건이 다 마련되여있는것은 아니였다.

하지만 이들은 주저하지 않았다. 조건이 갖추어지기를 기다릴것이 아니라 주동적으로 가능성을 찾아 당이 준 과업을 무조건 수행하여야 한다. 증산돌격전으로 들끓는 오늘의 벅찬 현실은 이런 사업기풍과 일본새를 요구하고있다.

일군들은 이것을 명심하고 군안의 기관, 기업소들의 각종 륜전기재들을 총동원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기관, 기업소들에서는 나라의 쌀독을 가득 채우기 위한 사업을 자기 단위 일로, 최우선적인 과업으로 여기고 자동차와 경운기를 비롯하여 알곡을 운반할수 있는 모든 륜전기재들을 동원하였다. 이 륜전기재들의 리용에 필요한 연유와 부속품보장도 자체로 맡아하기로 하였다.

일군들은 륜전기재별로 운반능력을 타산함에 기초하여 대당 하루 알곡수송량을 정하였다. 그리고 능력이 큰 자동차들은 멀리에, 다른 륜전기재들은 가까운 곳에 있는 농장들에 내보내여 수매용알곡운반을 하도록 면밀한 대책을 세웠다. 그리하여 수십대의 륜전기재들이 매일 빈틈없이 맞물린 계획에 따라 알곡집중수송전투를 벌리게 되였다.

결과 농장들에서는 수매를 보장하는데 리용하려던 연유로 트락또르와 이동식탈곡기들의 가동률을 높임으로써 낟알털기를 더 빨리 다그칠수 있었다.

농업근로자들은 온 군이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 총동원하고있는 사실에서 감동을 받았고 주인으로서의 자신들의 책임감을 깊이 느끼며 보다 분발해나섰다.

국가알곡수매를 끝낸 농장들이 련속 늘어나는 속에 군은 농사결속전투에서 앞선 단위의 대렬에 서게 되였다.

본사기자 김성협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총련 새 세대 일군대표단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8일 박옥삼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 새 세대 일군대표단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락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령도로 재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에서 그들은 수령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대표단성원들은 혼장보존실들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 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전국잠업부문 과학기술발표회 진행

전국잠업부문 과학기술발표회가 7일과 8일 인민대학습당에서 진행되였다.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열린 발표회에는 김일성종합대학, 원산농업종합대학, 해주고치생산사업소, 함구고치생산사업소를 비롯한 수십개 단위의 교원, 연구사, 기술자, 박사원생, 현장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우리 인민들에게 질좋은 비단천을 더 많이 안겨줄데 대한 당의 의도를 받들고 잠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누에고치생산을 늘이기 위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는 과정에 이룩한 과학기술성과와 경험들을 반영한 70여건의 가치있는 론문들이 발표회에 제출되였다.

발표회에서는 《뽕밭토양의 활성화와 뽕일다수확을 담보하는 뽕나무그루시비에 대한 연구》, 《1.8%차아염소산수생산과 누에치기에서의 소독효과》, 《식물발효액에 의한 질좋은 퇴보생산방법》, 《누에첨가제 〈봉화수〉에 의한 고치생산성》을 비롯한 론문들이 실천적의의가 큰것으로 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발표회기간 잠업발전추세에 대한 강의도 있었다.

우수한 론문을 발표한 참가자들에게 증서 등이 수여되였다.

필리핀에 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대표단 출발

우리 나라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집행부위원장 백용호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대표단이 필리핀에서 진행되는 적십자 및 적반월회국제련맹 아시아태평양지역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8일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하였다.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대표단 웰남을 방문하고 귀국

녀맹중앙위원회 위원장 장춘실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대표단이 웰남사회주의공화국을 방문하고 8일 귀국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녀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명숙동지가 마중하였다.

웰남대사관 성원들 미곡협동농장 참관

페바빙 주조 웰남사회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8일 사리원시 조선웰남친선 미곡협동농장을 참관하였다.

대사관성원들은 농장에 깃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당의 은정속에 사회주의문화농촌의 본보기답게 변모된 농장의 문화주택들과 유치원 등을 돌아보았다.

페바빙 특명전권대사는 이곳 농장이 앞으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 바란다고 말하였다.

대사관성원들은 농장에 지원물자를 넘겨주었다.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제9기 제8차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중앙위원회 제9기 제8차전원회의 확대회의가 8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위원들, 청년동맹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사상교양사업을 청년동맹사업의 중심, 핵으로 틀어쥐고 청소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더욱 실속있게 벌리기 위한 청년동맹조직들의 과업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 박철민동지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이번 전원회의 확대회의는 모든 청년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경제건설대진군의 선봉에서 위훈을 떨치도록 불러일으키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자》**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에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청소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전문적으로 벌려나가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제기하였다.

청년동맹조직들에서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충효교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각급 청년동맹위원회들에서 위대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5대교양을 더욱 심화시켜 모든 청소년들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과 열렬한 조국애, 불굴의 혁명신념과 투철한 반제계급의식,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닌 전위투사로 준비시킬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기치높이 과감한 공격정신과 청춘의 기백으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서 모든 청년들이 새로운 영웅청년신화를 끊임없이 창조하도록 선전선동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비사회주의적현상들의 위험성과 해독성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해나가며 청년미풍선구자들을 따라배우는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초급선전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사상교양사업에서 나라는 형식주의, 도식화를 철저히 극복하며 청년동맹일군들이 언제나 대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일하고 생활하면서 청년들의 심리에 맞는 참신한 교양방법을 부단히 찾아내여 널리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청년동맹일군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청년중시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데서 자기의 영예로운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결정서가 채택되였다.

금성청년출판사에 2중3대혁명붉은기 수여

금성청년출판사에 2중3대혁명붉은기가 수여되였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출판사의 기자, 편집원들과 일군들은 혁명의 필봉을 억세게 틀어잡고 전투적기백이 넘치는 출판활동으로 청소년들을 사회주의강국을 떠메고 나갈 믿음직한 역군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8일에 진행된 수여모임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휘동지와 출판사의 일군들, 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전달된 다음 표창장과 기발이 수여되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모범을 보인 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 혼장이 수여되였다.

모임에서는 주필 방정호동지, 부장 박시호동지, 기자 김철남동지가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출판물발행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키고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강성조선의 주인공들로 더욱 억세게 준비시킬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모든 기자, 편집원들과 일군들이 당의 믿음과 사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우리 당의 주체적청소년출판물킨실사상을 진정히 옹호고수하며 빛내여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절세위인들의 위대성선전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교양자료들을 풍위있게 출판하기 위한 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 청소년들의 심장속에 백두의 혁명정신과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을 심어줄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기자, 편집원들의 정치리론수준과 실무적자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짜고들며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와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게 출판물의 형식과 수준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한 오늘의 총진군길에서 자기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뽈스까대사관 독립연회

뽈스까독립 100돐에 즈음하여 주조 뽈스까공화국대사관이 8일 연회를 마련하였다.

외무성 부상 임천일동지, 조선뽈스까친선협회 위원장인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부위원장 서호천동지, 관계부문 일군들과 주조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이 초대되였다.

크쉬슈토프 체면 뽈스까공화국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뽈스까공화국 대통령 안드제이 두다각하의 건강을 축원하여,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100돐에 즈음하여 마련

전 국제태권도련맹 총재 최홍희생일 100돐 기념행사 참가자들 도착

전 국제태권도련맹 총재 최홍희생일 100돐 기념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중국, 로씨야, 캄보쟈, 도이췰란드, 말레이시아, 스웨리예, 영국, 인디아, 카나다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태권도인들, 무도관계자들, 해외동포태권도인들이 8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과 평양역에서 조선태권도위원회, 국제무도경기위원회, 관계부문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온 나라에 롱구열풍을 세차게 일으키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 일군들은 당의 의도에 맞게 체육사업을 중시하고 당의 체육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에 발벗고나서며 대중체육활동에 모범적으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나래치는 수도의 대동력기지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 롱구열풍이 세차게 몰아치고 있다.

일군들부터 앞장에서

얼마전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당책임일군은 한가지 문제를 두고 생각이 많았다.

현재까지 련합기업소에서 축구, 배구, 건강태권도, 대중물동제조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종목에 해당한 체육사업이 비교적 잘되고있다고 생각하였지만 롱구를 적극 장려하지 못한것이 마음에 걸렸던것이다.

물론 일군들부터 체육경기를 비롯하여 련합기업소에서 체육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맨먼저 운동복을 차려입고 운동장에 나와 대중체육활동에 모범적으로 참가한것은 사실이지만 이 문제에 관심을 적게 돌리다나니 종업원들속에서 롱구가 대중화, 생활화되지 못하고있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긴급협의회가 조직되였다.

일정대로 한다면 체육사업과 관련한 협의회는 며칠후에 진행하게 되여있었다. 하지만 모여온 일군들은 긴급협의회가 조직된 까닭을 잘 알고있었다.

협의회에서는 롱구를 대중화, 생활화하기 위한 강한 대책이 세워졌다.

협의회마감에 당책임일군이 이야기하였다.

《여기에 모인 모든 일군들은 롱구를 발전시키는것이 체육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당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것을 명심합시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3개로 팀을 구성하고 매 회전마다 선수들을 전부 교체하는 방법으로 모든 성원들이 경기에 참가해야 한다는 롱구경기조직요강을 발표함으로써 어느 부서에서나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였다. 누구나가 짬시간을 리용하여 경기규정을 더 깊이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는가 하면 일정하게 롱구기술을 소유하고있는 종업원들을 찾아가 심도있게 배우기 위해 애쓰고 주장으로 임명된 성원들은 어떻게 하나 자기 팀이 앞자리를 차지하도록 하기 위해 여러가지 전술을 세우면서 왼심을 썼다.

이러한 과정에 대동력기지는 말그대로 롱구열풍이 차넘치는 일터로 전변되게 되였다.

대중을 불러일으켜

일군들이 마음을 단단히 먹고 발라붙고 매 직장들에서 롱구를 적극 장려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으니 온 련합기업소가 롱구열의로 들끓었다.

련합기업소적인 체육경기에서 언제나 앞자리를 차지하는 직장들중의 하나인 타빈직장 일군들의 참도리가 만만치 않았다.

타빈직장의 일군인 김성철동무는 롱구를 장려하기 위한 문제를 두고 생각을 많이 하였다. 그는 직장종업원들의 롱구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킬 결심밑에 짬시간을 리용하여 자신이 직접 롱구경기규칙을 다시 학습하면서 그들에게 롱구상식과 기술을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알려줄수 있는 준비도 완전히 끝내였다.

이와 함께 롱구경기를 선수본위로가 아니라 종업원들 누구나가 다 참가할수 있게 조직진행할 목표를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놓았다.

타빈직장뿐아닌 다른 직장들의 일군들도 종업원들에게 롱구는 체력을 단련하고 키를 크게 할뿐아니라 지적능력을 발달시킬수 있는 아주 좋은 종목이라는것을 잘 알려주면서 대중의 롱구열의를 무쌔 높여나갔다. 이러한 분위기속에서 지난 시기 축구나 배구경기에서는 순위권에 들지 못했지만 롱구경기에서 앞자리를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품고 롱구기술을 익히기 위해 노력하는 종업원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어떤 직장에서는 롱구공을 비롯한 기재들을 일식으로 마련하고 누구나 롱구를 배우고 기술을 높일수 있는 조건도 빈틈없이 갖추어놓았다.

모든 직장들에서 롱구열의가 높아지면서 체육관을 찾는 종업원들이 늘어나는 현실적조건에 맞게 련합기업소에서는 직장별체육관리용시간을 보다 합리적으로 짜고들었다.

특히 며칠후부터 진행하게 될 련합기업소적인 롱구경기를 앞두고 책임일군들은 종업원들의 앙양된 롱구열의를 최대로 분출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되게 하기 위하여 팀구성과 경기조직을 더욱 다양하게 하기 위한 토론을 거듭하였다.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의 일군들처럼 체육사업에 대한 옳바른 관점을 가지고 당의 체육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에 발벗고나서며 앞장에서 대중을 이끌어나갈 때 롱구열풍은 더 세차게 일어번지게 될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지혁철

선수후비육성사업에 힘을 넣어

강서구역청소년체육학교 롱구지도교원 리수동무

롱구는 사람들의 체력을 단련시키고 키를 크게 하며 지적능력을 발달시키는 체육종목이다.

롱구는 우선 사람들의 몸단련에 매우 좋다.

두 팀이 일정한 높이로 된 그물을 사이에 두고 공을 쳐넘기는 방법으로 승부를 가르는 배구경기와는 달리 롱구경기에서는 두 팀이 규정된 높이에 매달아놓은 상대편 륜에 공을 먼저넣은 점수로 승부를 겨루게 된다.

여러 모로 좋은 롱구

그러므로 롱구선수들의 운동량은 배구선수들보다 더 크다.

롱구는 공보내기와 잡기, 받기, 넣기, 가로채기 등의 동작들이 빠른 속도로 각이하게 진행되는 체육종목이다. 따라서 롱구를 많이 하면 민첩성이 발달된다. 롱구는 달리면서 공보내기와 잡기, 급출발과 급정지, 방향바꾸기 등의 동작들이 부단히 반복되면서 진행되는데 그 과정에 속도힘이 발달되게 된다.

또한 롱구는 사람들의 키를 크게 한다.

롱구를 하는 과정에 사람들은 조약하여 넣기, 판뚱잡기, 공쳐내기 등과 같은 동작을 많이 하게 된다. 이러한 운동의 특성으로 하여 롱구를 많이 하면 키가 빨리 큰다.

다음으로 롱구는 사람들의 지적능력을 발달시킨다.

좁은 구역에서 빠른 이동과 정지, 공보내기와 잡기 등 롱구기술동작들을 수행하는 과정에 균형감각뿐만이 아니라 운동지각을 발달시킨다.

또한 속공, 대인방어돌파, 구역방어돌파 등 롱구전술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기 팀과 상대팀에 대한 인식, 경기장구역에 대한 지각, 앞으로 이동할 방향과 위치, 전술수법에 대한 판단, 추리, 예측과 결심 등과 같은 지능을 매우 높은 수준에서 발달시킨다.

롱구는 제한구역에서의 3초규정을 비롯한 정확한 시간지각과 결단성, 완강성 등을 끊임없이 높여주고 여러가지 심리적기능들과의 호상련관속에서 지적능력을 발달시킨다.

본사기자

얼마전 우리는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2018을 위재하는 과정에 40여년세월 롱구선수후비육성사업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고있는 한 지도교원에 대하여 알게 되였다.

그가 바로 강서구역청소년체육학교 롱구지도교원 리수동무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체육발전의 밝은 미래는 우수한 체육종목들의 패권적지위를 이어나가며 체육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유능한 체육선수후비들을 얼마나 많이 키워내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리수동무에게 있어서 어린 시절부터 간직했던 희망은 이름난 롱구명수가 되는것이였다.

그 꿈을 안고 땀방울을 아낌없이 뿌리며 훈련장을 뛰어다닌 시절도 있었다.

1973년은 리수동무의 한생에서 잊을수 없는 해였다. 어머니당의 품속에서 마음껏 희망을 꽃피워온 그가 대학을 졸업하게 된것이다.

들끓는 조국의 숨결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학업에서도 남다른 성적을 보여준 그를 어서 오라 부르는 곳도 많았다. 그러나 그가 택한 곳은 체육선수후비육성기지였다.

고마운 조국, 귀중한 조국의 존엄과 명예를 만방에 떨치는 훌륭한 롱구선수후비들을 키우는 사업에 한생을 바쳐갈 불같은 애국의 마음이 그에게 남다른 인생좌표를 그어준것이였다.

리수동무는 롱구선수후비들을 키우는 사업에 전력을 기울여갔다.

보든것이 부족했던 고난의 시기에도 롱구를 장려하고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뜻을 심장에 새기고 온 하루 훈련지도로 몸을 땀으로 적시군 하였으며 밤이면 교수훈련지도에 도움이 될수 있는 론문집필로 꼬박 새우기도 하였다. 조국을 위해 진실한 애국의 마음과 불타는 열정을 다 바쳐오는 나날에 그는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진행된 롱구경기의 심판사업을 맡아하는 크나큰 사랑과 믿음도 받아안게 되였다.

당의 사랑과 믿음은 리수동무의 지칠줄 모르는 생의 원천이였고 활력소였다.

나라의 롱구선수후비육성사업에 이바지할수 있는 일이라면 그는 큰일, 작은 일 가리지 않았다. 때로는 한건의 자료를 얻기 위해 인민대학습당과 도서관을 비롯한 해당 단위들을 찾아 먼길을 걷기도 하였고 외국문도서들과 잡지들을 번역해가며 높은 지식의 탐을 쌓기 위해 피타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그가 집필한 론문들은 조국에 바쳐온 그의 성실한 땀심의 자욱이고 값높은 애국의 자취이다. 그 나날 리수동무는 수백명의 롱구선수후비들을 키워냈다. 그들중에서 국가대표선수들도 많이 배출되였다.

언제나 운동복을 입고 학생들의 롱구훈련지도에 정열을 쏟아붓는 그를 보고 이제는 쉬엄쉬엄 일할것을 권고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때마다 몸은 늙었어도 마음은 아직도 청춘이라고 하면서 즐겁게 웃는 리수동무이다.

20대의 청춘시절에나 예순살이 훨씬 지난 오늘에나 나라의 롱구발전을 위해 바치는 그의 마음은 변함이 없고 로씨를 모른다.

머리에 흰서리를 얹은 리수동무가 훈련장에 나설 때마다 10대의 소녀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달려와 안기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깊은 감동을 받군 한다.

당에서는 롱구선수후비육성사업에 적극 이바지해온 그의 공로를 소중히 여겨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도 지니도록 해주었다.

그 믿음, 그 사랑을 가슴에 안고 오늘 리수동무는 롱구선수후비육성사업에 불타는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주령봉

장진군에서 산골학교들의 아름다운 새 모습

장진군의 면모가 몇해사이에 완전히 일신되였다.

군의 변모된 모습은 산골학교들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교육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최근년간에 장진군에서 학교건물들의 면모를 일신해가고있다.

읍에 있는 학교들은 물론 그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는 학교들도 새 모습을 드러내게 된데는 사연이 있다.

몇해전 어느날 읍에서 100리정도 떨어진 서목리를 돌아보던 군당책임일군은 리소재지에서 또 수십리나 되는 곳에 있는 서목고급중학교 직수분교로 갔다.

현지에 도착한 군당책임일군은 낡은 분교건물을 보면서 생각이 많았다.

읍이나 그로부터 수십리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학교들의 면모는 일신되고있었지만 외진 산골에서 살고있는 아이들에게도 문명한 교육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지 못한 자책감에서였다.

하여 군에서는 강력한 진설력량을 조직하고 운수수단을 동원하여 각종 자재들을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다.

군당책임일군을 비롯한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진정에 떠받들려 읍에서 100리가 넘는 이곳에도 아담한 교사가 일떠서게 되였다.

산간오지인 서목리에 새 교사가 일떠서게 되자 마을인민들은 물론 이곳을 자주 오가던 손님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군에서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앙양된 기세를 늦추지 않고 련이어 다른 학교들도 훌륭히 꾸리기 위한 된비탈을 넘었다.

림산리에 있는 림산고급중학교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문제가 제기되였을 때였다.

일부 일군들은 건장한 로력과 자재문제를 먼저 생각하면서 새 교사의 규모를 크게 잡지 못하고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군당책임일군은 후대들을 위한 일에서는 아까울것이 없다면서 교사규모도 대담하게 더 크게 정하고 군당일군들을 위주로 많은 로력을 배치하여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건설을 빨리 결속하기 위한 대책까지 세워주었다.

이 나날에 림산고급중학교에도 당실한 새 교사가 일떠서게 되였으며 후대들에게 문명한 교육환경을 마련해주는 사업에 대한 일군들의 열의가 더욱 높아졌다.

이렇게 되여 군에서는 몇해사이에 수십개 학교의 수백개에 달하는 교실들을 현대적인 교육수단들을 갖춘 다기능화된 교실로 전변시킬수 있었다.

당에서 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후대들에게 모든 교육조건과 환경을 높은 수준에서 마련해주려는 장진군 일군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교육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게 되였다.

이러한 성과에는 후대교육사업은 혁명의 대를 이어주고 나라의 발전을 추동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는것을 자각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군교육발전을 위한 사업을 한시도 중단하지 않고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밀고나가는 군일군들의 진정이 뜨겁게 깃들어있다.

당의 교육중시사상과 정책을 앞장에서 관철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최상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 사심없이 노력하고있는 일군들의 진실한 마음에 떠받들려 산골학교들에서도 배움의 글소리는 더 높이 울리고 더 많은 인재후비들이 자라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독자의 편지

저는 신원군 무학리에서 살고있는 전쟁로병입니다.

제가 이렇게 편을 들게 된것은 전쟁로병들의 건강을 극진히 보살펴주고있는 의료일군들을 자랑하고싶어서입니다. 우리 리인민병원 의사선생님들은 로병들의 건강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고있으며 집에도 자주 찾아오면서 전쟁로병들에 대한 검진과 치료사업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우리 로병들을 위하여 약효가 높은 고려약들도 많이 보내주면서 성심성의로 돌봐주고있습니다.

저도 한동안 앓았는데 병원에서 생산한 고려약을 먹고 효과가 좋아 고맙다고 이야기했더니 이곳 의료일군들은 더 많은 약을 만들어 병을 완치하게 해주었습니다.

전쟁로병들을 혁명선배로 존대해주며 언제나 건강한 몸으로 행복한 삶을 누려가도록 뜨거운 정성을 바쳐가는 이런 훌륭한 보건일군들을 키워준 어머니당에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신원군 무학리 42인민반 박상선

다수확의 비결은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있다

안악군 대추협동농장 제7작업반장 박용철동무의 사업경험을 놓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인 농업전선에서 과학농사열풍을 일으키고 다수확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온 나라에 다수확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있는 속에 해마다 다수확작업반대렬이 늘어나고있다. 그 앞장에 선 단위들중에는 안악군 대추협동농장 제7작업반도 있다. 지난 시기 농사조건이 시원치 못한데다 많은 경우 농장의 지원에 의거하던 작업반이였다. 이런 작업반이 최근 몇해사이에 세림으로 일떠서 해마다 알곡생산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는 다수확단위로, 축산과 온실남새, 버섯생산 등 당정책관철에서 앞장선 힘있는 단위로, 농장원들의 분배수준이 높은 작업반으로 되였다.

축산물생산이자 알곡증산

주체농법의 중요한 요구의 하나는 지력을 높이는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품종과 재배방법, 재배기술을 도입하고 많은 비료를 썼다고 해도 응당한 결실을 거둘수 없다는것은 명백하다.

9년전 어느날 작업반장으로 임명되여 작업반실태를 료해하는 박용철동무의 얼굴은 밝지 못하였다. 지력이 낮고 정보당 수확고가 높지 못하며 작업반살림살이형편이 어려운것도 안타까운 일이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것은 일부 농장원들과 초급일군들의 머리속에 깊이 박혀있는 의존심이였다. 거름생산과 실어내기, 흙짐이로부터 가을걷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농공정에서 농장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농장원수에 비해 경지면적이 많은 작업반의 실정에서는 응당 있을수 있는 일로 여기고있는 그릇된 관점이였다.

자체로 농사를 지을데 대한 당정책을 결사관철하려는 각오가 투철하지 못하였다. 그릇된 관점과 사고방식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농사에서 혁신을 일으킬수 없다는 생각이 그의 뇌리를 쳤다.

《이 땅도 크든작든 조국의 귀중한 한 부분이고 나라의 쌀독에는 우리가 채워넣어야 할 몫도 있습니다. 작업반명칭만 있고 진정한 주인들이 없는 이런 작업반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작업반장의 말이 분조장들과 농장원들에게 준 충격은 컸다. 논면적은 서로 다르고 지력이 높고낮은 땅은 따로 있을수 있어도 이 땅에 바치는 우리의 량심, 땀의 무게에서는 티끌만 한 차이도 없어야 한다.

그는 당의 농업정책을 깊이 연구하고 실농군들과 무릎을 마주하기도 하는 과정에 농산과 축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확립하면 지력을 높일수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였다.

당의 뜻대로 축산에 힘을 넣자. 축산이자 질좋은 거름생산이고 알곡증산이며 작업반활성화의 위력한 담보이다.

작업반장은 비육분조를 먼저 추켜세울것을 결심하였다. 본보기를 창조하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면서 온 작업반에 축산열풍을 일으키자는데 목적이 있었다.

비육분조에 집짐승키르기경험이 있는 성원들을 새로 배치하고 작업반을 총동원하여 돼지우리를 튼튼하게 지었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은것이 축산이였다.

첫해에 잘 자라던 새끼돼지들이 갑자기 병에 걸려 죽었다. 농장원들은 돼 돼지를 키울수 있겠는가고 우려하였다.

작업반장은 안타까와하는 사양공에게 과학축산을 할데 대한 당정책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집짐승들을 자기의 살점처럼 여기며 모든 지혜와 정열을 쏟아부으면 얼마든지 축산을 잘할수 있다고 고무해주었다.

그후 비육분조원들은 10여마리의 새끼돼지를 다시 구입하여 기르면서 돼지우리소독과 예방접종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내밀었다.

박용철동무는 작업반의 축산물생산을 늘이는 과정에 얻은 경험에 기초하여 농장원세대들에 새끼돼지를 2마리씩 공급하고 개인축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밀고나갔다. 결과 온 작업반에 축산열풍이 세차게 일어나 돼지, 닭뿐아니라 오리, 염소를 더 많이 기르고 비알곡먹이비중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였다.

당정책을 자기자신의것으로, 작업반의 생사를 결정하는 사활적인 문제로 접수한 초급일군의 사상적각오는 이렇듯 투철했고 지혜와 열정 또한 진함이 없었다. 날을 따라 높아가는 축산물생산실적은 초급일군들과 농장원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었다. 축사마다 돼지, 닭, 오리, 게사니가 우글거리고 거름더미가 높이높이 솟아났다. 축산을 하니 고기와 알도 쏟아져나오고 지력이 높아져 쌀독이 넘쳐났으며 작업반살림이 흥해졌다.

누구나 과학농사의 기수가 될 때

비배관리가 한창이던 어느날이였다. 작업반포전을 돌아보던 작업반장은 자기의 사업을 곰곰히 되새겨보았다. 일부 농장원들은 아직도 낡은 경험에 매달리면서 농작물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요구대로 하지 못하고있었다. 그는 지난 시기와 달라진 오늘의 현실을 대비적으로 분석해보는 과정에 그 원인을 찾게 되였다.

지난 시기에는 기능공들과의 사업만 잘 짜고들고 그들에 대한 기술적지도를 따라세우면 얼마든지 농작물비배관리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하지만 분조관리제안에서의 포전담당책임제가 실시되고 여러가지 선진영농방법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제한된 기술력량만으로는 농작물가꾸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진행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었다.

결국 방도는 명백하였다.

당의 뜻대로 작업반원들을 모든 농사일에 정통하고 현대농업과학기술을 소유한 진짜배기실농군으로 키우는데 다수확의 지름길이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할 표책을 찾아야 하였다. 그는 초급일군들을 비롯하여 많은 농장원들을 만나보았다. 그 과정에 작업반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일수 있는 합리적인 방도들을 찾아쥐게 되였다.

우선 매일 아침 30분이상 기술학습을 정상적으로 하였다. 기술학습은 그날 진행하게 될 작업내용과 함께 그 수행과정에 제기될수 있는 기술적문제들을 하나하나 알기 쉽게 해설해주는 방법으로 하였다. 그리고 다음날작업과제와 준비해야 할 소농기구, 필요한 기술적내용들을 미리 알려주어 농장원들이 그날 작업을 하면서 다시한번 익히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여기에만 그치지 않고 실지 제손으로 해보는 과정에 배운 지식을 더욱 공고히 하도록 하였다.

농악치기에 앞서 모의훈련을 한 실례를 놓고보자. 지난 시기에는 이 작업을 기능공들만 진행하다나니 많은 농장원들이 처음 해보게 되였다. 눈앤 익고 손엔 설다고 이런 농장원들이 분무기를 메고 다루면 분무높이를 바로 보장하지 못하여 많은 농약을 허실하거나 오히려 논벼에 피해를 줄수 있었다.

변화된 조건은 결정적으로 충분한 숙련을 요구하였다. 이로부터 작업반장은 일정한 면적에 모의훈련장을 정하고 모든 농장원들이 분무기를 실지로 다루어보면서 충분히 익숙하도록 하였다. 이런 훈련을 거치는 과정에 농장원들의 수준은 기능공들 못지 않게 높아졌다.

초급일군들은 벼가을을 하면서 정보당 수확량을 놓고 경험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며 교훈을 찾아나가는 사업도 따라세웠다. 이런 사업은 모든 농장원들에게 과학농사의 우월성을 열백마디의 말이 아니라 실지체험으로 최단기간에 인식시킨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결과 모든 작업반원들이 과학농사에 대한 관점을 바로가지고 앞선 영농방법과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 애써 노력하였다. 이제는 농장원들까지 새로운 영농방법이 또 나온것이 없는가고 묻군 한다는 하나의 실례만으로도 작업반에서 과학농사열풍이 얼마나 세차게 일어나고있는가를 설명하기에는 충분하다.

제7작업반의 경험은 당의 뜻대로 주체농법의 요구를 깊이 파악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는데 다수확의 비결이 있다는 진리를 새겨주고있다.

본사기자 전명일

실리있는 수도관루수탐지기 개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야 나라의 과학기술전반을 빨리 발전시키고 지식경제의 토대를 구축해나갈수 있습니다.》

평양시안의 3대혁명소조원들이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힘을 넣어 수도관루수탐지방법을 현실적조건에 맞게 확립하고 새형의 수도관루수탐지기를 개발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새로운 수도관루수탐지기는 임의의 상수도망에서 물이 새는 위치를 짧은 시간내에 찾을수 있게 하는 장치이다.

자료에 의하면 직경 300mm 수도관의 이음부 또는 관의 로화로 하여 생긴 작은 구멍이 직경 5mm일 때 한시간동안에 새는 물량은 100L이상이며 이런 루수점들이 10개 된다면 하루에 수만L의 물이 새나오게 된다.

수도관로에서 물이 새는 위치를 제때에 찾아내는것은 많은 전력과 물의 랑비를 막기 위한 방도의 하나이며 주민들에 대한 물공급을 정상화하고 상수도부문의 작업을 과학화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이것을 길이 자각한 시안의 3대혁명소조원들은 과학연구사업에서 애국적열정과 헌신성을 높이 발휘하였다.

이들은 루수탐지와 관련한 경험도 없고 과학도 부족하였지만 현실적조건에 적합한 새로운 수도관루수탐지기를 개발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왔다. 그 과정에 첨단기술의 하나인 비지향CT법과 자연진위법을 적용하여 임의의 시간과 장소에서 루수점을 보다 신속정확히 탐지할수 있는 새로운 과학기술적방법론을 확립하였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수도관루수탐지기를 자체로 개발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새로운 수도관루수탐지기는 수입산 루수탐지기들에 비해 매우 적은 원가를 들여 제작할수 있을뿐만아니라 탐지속도와 정확도가 높은 기술적특성을 가지고있다. 또한 물을 공급하는 시간이나 공급하지 않는 시간에 관계없이 리용할수 있으며 콩크리트도로바닥이나 잔디밭, 산비탈을 비롯한 임의의 장소에서도 높은 정확성을 보장할수 있다.

루수위치확정에 들던 많은 시간과 로력을 절약하고 전력랑비와 물랑비를 극력 줄일수 있게 하는것으로 하여 우리 식의 새로운 수도관루수탐지기는 해당 부문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본사기자 강철웅

남새전문농장에서 — 정철훈 찍음

얼굴마다 넘쳐난다. — 만경대구역 만경대 흐뭇한 남새작황을 마련한 기쁨 농장원들의

자력갱생으로 영원히 승리떨쳐갈것이다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경제건설대진군을 힘차게 벌리며 끊임없이 창조와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는 우리 인민의 투쟁모습에 국제사회가 경탄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식 사회주의의 전력사를 줘여짜면 자력갱생이라고도 말할수 있습니다.》

자력갱생, 간고분투는 자기 힘을 믿고 자기 힘에 의거하여 혁명을 끝까지 하려는 조선혁명가들의 불굴의 혁명정신이며 투쟁원칙이다.

우리 인민은 사대와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라는것을 력사를 통하여 뼈아프게 체험하였다. 렬강들의 힘을 빌어 일제의 식민지지배를 막아보려고 도움을 청하러 갔던 우국지사가 만국평화회의장에 선혈을 뿌린 헤그밀사사건은 오늘도 우리 인민에게 가슴아픈 교훈을 주고있다.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싸우는 길만이 일제를 타도하고 도탄에 빠진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는 길이였다. 이 력사의 진리를 철의 신념으로 간직하시고 주체의 기치높이 전체 인민을 항일대전에로 몰아일으키신분이 바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의 나날 백두밀림에 차넘쳤던 연길폭탄정신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 얼마나 위력한가를 투렷이 확증하였다.

우리 인민은 해방후에도 자체의 힘으로 기관단총을 만들어 자립적국방공업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강도 일제를 때려부신데 이어 1950년대의 전승을 이룩하는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면서 우리 인민은 제힘을 믿고 땀치일어나 승리하는 력사의 주인, 자력갱생의 투사들로 자라났다.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는 주체사상의 창시로 민족의 자주적운명개척의 진로를 밝혀주시고 현명하게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만 믿고 따르면 승리는 언제나 조선의 것이라는 철리가 불변의 신념으로 간직되게 되였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은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운 위대한 창조와 변혁의 힘이다.

우리 인민은 당이 제시한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높이 받들고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천리마를 타고 내달리며 전후의 재더미를 털어버렸다. 우리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간고분투하여 단 14년만에 자체의 힘으로 사회주의공업화를 완성하였고 자립적민족경제의 억척의 토대를 닦았다.

만일 그때 우리 당이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면서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지 않았더라면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련이어 붕괴되고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이 날로 악랄해지던 1980년대말과 1990년대에 사회주의를 지켜내지 못하였을것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끝까지 하려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우리 인민을 불가능을 모르는 정신력의 최강자로 키웠다. 그 정신과 힘에 떠받들려 오늘 우리 조국은 그 누구도 무시할수 없는 불패의 사회주의보루로 강화발전되였다.

자주로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하고 일심단결과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백승의 력사와 전통을 창조해온것이야말로 세계가 경탄하여마지 않는 주체조선의 크나큰 긍지이다.

준엄하고도 거창한 투쟁속에서 이 땅우에 이룩된 세기적인 변혁과 위대한 승리는 그 어떤 고난과 시련도 두려움없이 자력갱생의 한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을 그 누구도 가로막을수 없다는것을 웅변적으로 실증해주고있다.

조선혁명의 전행정에서 변함없이 휘날려온 자력갱생의 기치는 오늘 사회주의건설의 전구마다에서 더욱 힘차게 나붓기고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함에 대한 조선로동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필승의 신념으로 떠받든 불굴의 인민에 의해 세인을 놀래우는 창조대전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있다. 주체조선의 보다 광명한 래일이 실계되고있다.

우리 인민은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자력갱생의 위력,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백승의 력사를 창조하여온 백절불굴의 투쟁전통을 굳건히 계승하여 혁명열, 투쟁열을 백배, 천배로 폭발시키고있다.

자력갱생에는 자주로 존엄높은 승리의 전통이 있고 사회주의조선의 무궁무진한 창조의 힘이 있으며 자기 위업의 최후승리를 확신하는 강용한 인민의 불굴의 기상이 맥박치고있다.

자주적인민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이는 길은 오직 자력갱생의 한길뿐이다. 우리는 그 길로 끝까지 갈것이며 그 길에서 언제나 승리만을 떨칠것이다.

이것이 오늘의 거창한 창조대전을 벌려나가는 우리 인민의 드팀없는 의지이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력사의 기적만을 창조해나가는 영웅적인민의 전진은 그 어떤 힘으로도 멈춰세울수 없다.

리 효 진

군국주의광신자들의 호전적망동

얼마전 일본이 하와이앞바다에서 미국과 요격미싸일 《SM-3 블로크 2A》의 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요격미싸일시험발사는 지난해 6월과 올해 1월의 시험발사에서 실패한데 이어 진행된것이다. 이러한 시험발사는 앞으로 몇차에 더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일본언론들은 이번 시험발사가 조선의 《탄도미싸일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지상요격미싸일체계도입계획에 따른것이라고 하면서 그 당위성에 대해 선전하였다. 일본은 2021년까지 이 미싸일의 개발을 완성하여 실전배비하려 하고있다.

이런 무분별한 군사적광기는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엄중한 군사적도발행위이다.

일본반동들의 속심은 어떻게 해서나 우리 공화국으로부터의 《위협》설을 요란하게 떠들어대여 지역정세를 긴장상태에로 되몰려세우고 저들의 재침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자는것이다.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여 터무니없이 우리를 걸고들며 군사대국화에로 질주하는 일본반동들의 심보고약한 행태는 극도의 위험단계에 이르렀다.

특상《자위대》는 미국뿐아니라 영국의 륙군과도 공동군사훈련을 진행하였다. 지금 이 시각에도 《테로방지》라는 미명하에 또 다른 나라와 군사훈련을 진행하며 살벌한 분위기를 고취하고있다.

심상치 않은 군사적움직임은 여러 나라들과의 공동군사훈련을 통하여 《자위대》의 전투력을 부단히 강화하고 나아가서 해외팽창야망의 더러운 꿈을 실현해보려는 군국주의광신자들의 어리석은 망동에 불과하다.

인류의 념원에 도전하는 사무라이후예들의 군국주의광기로 하여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는 새로운 침략전쟁의 검은구름이 시시각각 몰려오고있다.

일본을 전쟁국가로 만드는것은 아베일당의 최종목표이다. 그를 위해 헌법개악을 서두르고있다.

이미 재침을 노린 헌법개악책동은 마감고비에 들어선 상태이다.

현재 아베세력은 헌법개악을 위해 정치적도박을 하고있다고 말할수 있다.

지난 9월에 진행된 자민당총재선거에서 아베는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헌법 9조의 개악을 우선시할것을 강하게 주장해나섰다. 그런가 하면 헌법개악안을 적극 추진시킬 목적으로 자기의 심복골개들을 자민당내 헌법개정추진본부장과 총무회장으로 들여앉혀놓는 등 정치적지반을 새롭게 구축해놓았다.

아베가 총재로 있는 자민당은 앞으로 가까운 시기에 소집되는 림시국회에 헌법개악안을 제출하고 그것을 무난히 통과시키려 하고있다.

아베일당의 개헌안은 침략력사를 되풀이하려는 악법인것으로 하여 일본국내의 강한 반대에 부딪치고있다.

자민당총재선거기간에 일본의 NHK방송은 여당이 가을에 진행되는 림시국회에 헌법개악안을 제출하는데 대한 찬성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진행하였다. 그에 의하면 찬성은 18%였으며 반대는 거의 두배에 달하였다.

야당들도 반대의사를 표명해나서고있다.

일본반동들의 헌법개악책동은 민심을 등진자들의 단말마적인 발악에 불과하다. 일본이 가는 재침의 길, 전쟁의 길은 멸망의 함정에로 더욱 깊숙이 빠져드는 길이다.

아베를 비롯한 군국주의광신자들이 패전의 력사를 망각하고 재침야망에 환장이 되여 날뛸수록 차례질것은 오직 전세계의 항의규탄과 수치스러운 자멸뿐이다.

라 명 성

여러 나라 신문, 통신이

우리 나라 교육제도를 소개

우월한 우리 나라 교육제도를 로씨야신문, 캄보쟈통신이 소개하였다.

로씨야신문 《폼쏘몰스까야 프라우다》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에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고있다.

이 교육제도는 교육사업에 필요한 모든 부담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하는 제도이다.

특히 조선에서는 수재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 투자를 아끼지 않고있다.

캄보쟈의 아까뻬통신은 이렇게 보도하였다.

조선에서는 현재 교육환경과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적관심이 보다 높아지고 실질적인 조치들이 취해지고있으며 교육기관들을 도와주는 기풍이 확립되고있다.

이 나라에서 실시하고있는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은 사회의 일반문화기술수준을 높이고 사회와 경제의 지속적발전의 확고한 담보로, 뛰여난 인재들을 배출할수 있는 바탕으로 되고있다.

조선의 나어린 학생이 국제수학올림픽 3종금메달수상자로 된것을 두고 세계의 많은 교육자들은 조선이야말로 수재가 많은 나라, 교육수준이 매우 높은 나라이라고 경탄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사원이 많은 나라

아시아의 동남쪽에 위치하고있는 캄보쟈에는 오랜 력사를 가진 사원이 많다. 나라의 곳곳에 크고작은 사원들이 2400여개나 있다고 한다. 이 나라 국기에 사원이 그려져있는 한가지 사실만을 놓고보아도 캄보쟈인민이 옛 건축물들을 얼마나 자랑으로 여기고있는가를 잘 알수 있게 한다.

12세기에 건설된 앙코르와트는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건축물로 알려져있다. 이 사원은 앙코르왕조시기에 크메르족이 앙코르에 세운것이다. 앙코르란 캄보쟈말로 성이라는 뜻이고 와트는 절이라는 뜻이다.

큰돌들을 쌓아서 만든 거대한 성전으로서 전경이 매우 아름답다.

지난 시기 식민주의자들의 강점책동으로 말미암아 앙코르와트를 비롯하여 캄보쟈의 력사유적유물들은 심히 파괴되거나 많이 없어졌다. 1953년 11월 9일에 독립을 이룩함으로써 유적유물은 캄보쟈인민의것으로 되였다.

캄보쟈는 유적유물발굴과 그의 보호관리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몇해전에 앙코르와트사원에서 수자식영상기술을 리용하여 200여점의 벽화를 새로 발견하였다. 벽화들에는 코끼리와 말, 신 등이 그려져있다고 한다. 당시 연구사들속에서는 정교한 그 그림들은 육안으로는 전혀 볼수 없는것들이며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정교하게 그릴수 있었는지 리해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들이 흘러나왔다.

지난해에는 앙코르와트유적에서 12세기말 혹은 13세기초에 만들어진것으로 추정되는 조각상을 발굴하였다.

캄보쟈정부는 앙코르와트유적을 국유화할데 대한 조치를 취하고 유적운영을 국가가 맡아하고있다.

3년전 우리 나라의 협조로 앙코르와트가 있는 씨엠리엡주에 건축학적으로나 조형예술적으로 훌륭하게 건설된 앙코르전경화관이 개관되였다.

완공된 앙코르전경화관은 캄보쟈의 경제발전뿐만아니라 우리 나라와 캄보쟈사이의 친선협조관계발전에도 이바지하고있다.

오늘 앙코르와트는 세계적인 관광명승지로 되고있다. 해마다 수백만명의 관광객들이 캄보쟈에 찾아와 앙코르와트를 비롯한 력사유적들을 참관하고있다.

캄보쟈정부는 관광업을 더욱 발전시킬 목적밑에 수도 프놈펜과 유명한 앙코르와트유적이 있는 씨엠리엡주에 2개의 국제비행장을 새로 건설할것을 계획하고 그 실현에 힘을 넣고있다.

예술을 좋아하고 력사를 귀중히 여기는 캄보쟈인민은 오늘도 크메르문화의 전통을 적극 살려나가고있다.

오늘은 캄보쟈왕국독립 65돐이 되는 날이다.

박 진 향

특별재판부설립을 반대하는 반역당을 비난

얼마전 남조선의 한 인터네트신문이 사법롱락사건과 관련한 특별재판부설립문제를 오직 《자유한국당》만이 반대하고있다고 보도하였다. 신문은 《자유한국당》이 특별재판부설립을 반대하는 리유에 대해 이렇게 까밝혔다.

광승태가 주도한 대법원의 사법롱락사건은 박근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유한국당》이 특별재판부설립을 반대하는 실질적인 리유가 바로 이때문이다. 사법롱락사건의 실체가 밝혀질수록 당시 여당이였던 《자유한국당》에 대한 정치적타격이 불가피해진다. 이것을 우려한 《자유한국당》은 특별재판부설립을 필사적으로 막고있다.

신문은 특별재판부설립을 한사코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처사는 민심에 역행하는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광주대학살범죄의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행위

지난 2일 남조선의 한 언론은 《자유한국당》의 무당한 처사에 의해 5.18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고있는데 대해 보도하였다.

그에 의하면 이미 9월에 조직되여 《계엄군》의 발포와 성폭행범죄 등 제기된 각종 문제들을 파헤쳐야 할 5.18진상조사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이 조사위원을 내지 않고있는것으로 하여 2개월째 문을 열지 못하고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여당은 몸은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조사위원을 빨리 선정할것을 요구하고있지만 《자유한국당》은 당치않은 구실을 대며 명단제출을 차일피일 미루고있다고 한다.

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조사위원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5.18진상조사위원회는 많은 시일이 지났는데도 첫 회의조차 진행하지 못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정의당은 수십년간 방치된 광주대학살만행당시의 《계엄군》의 성폭행범죄의 진상을 하루속히 조사해야 하는 판에 《자유한국당》이 조사위원추천을 늦추면서 진상규명을 가로막고있다고 비난하며 진상조사를 방해할 의도가 아니라면 민중의 요구에 부합되는 조사위원을 즉각 추천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본사기자

과거《정권》시기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

6일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과거독재 《정권》시기 악법위반으로 불려 가혹한 고문을 당한 한 피해자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1972년 8월 당시 대학생이였던 피해자는 혼자 산책을 하면서 조용히 《김일성 만세!》를 불렀다고 한다.

경찰은 이를 구실로 그를 체포하고 손가락이 불구가 될 정도로 폭행을 가하며 허위진술을 강요하였다.

이로 하여 다음해 그는 《반공법》 및 《보안법》위반에 몰려 유죄판결을 받게 되였다.

민변은 피해자가 구속영장없이 불법적으로 감금되였을뿐아니라 수사과정에 가혹한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하였다.

요시찰명단작성의 책임자처벌을 요구

남조선 《MBC》방송에 의하면 문화예술인모임인 문화민주주의실천련대가 3일 《국회》앞에서 집회를 가지고 문화예술계요시찰명단을 작성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것을 요구하였다.

단체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요시찰명단을 작성한자들중 누구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문화예술계요시찰명단 진상조사위원회가 요구한대로 요시찰명단작성에 가담한 131명에 대하여 수사의뢰나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고 단체는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의 제재를 분쇄할것이라고 언명

이란대통령 하싼 루하니가 5일 적절한 대응책으로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분쇄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최근 미국이 새로운 대이란제재조치를 발효시킨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를 잔인한 처사로 락인하고 국제시장에서 원유판매를 계속할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회적단합을 실현하여 이란인민에게는 미국의 압력과 위협이 통하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관광업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

쑤바정부가 수도 아바나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꾸릴것을 계획하고있다.

이를 위해 다음해에 도시에서 12개의 호텔을 개업하게 되며 관광객들에게 보다 편리한 조건을 보장해주고 그들의 인기를 끌수 있는 봉사시설들을 내오기 위한 사업이 추진된다. 이 나라 관광상이 이에 대해 밝혔다.

여러 나라들 협조

오만과 케니아가 10월 29일 두 나라사이의 무역협조를 발전시킬데 관한 량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에 앞서 27일 이란과 까자흐스딴이 륙로를 통한 화물수송에서 쌍무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협정에 조인하였다.

산림과 환경보호노력

—중국의 강서성에서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133만 6800무의 산림을 조성하였다.

최근 성의 림업국이 이에 대해 밝혔다.

—르완다에서 10월 27일 전국적인 나무심기운동이 시작되였다.

앞으로 6개월동안 진행되는 운동기간 약 4만 3590ha의 면적에 나무를 심게 된다.

수도 끼갈리에서만도 180ha의 농경지보호림과 30ha의 나무숲이 조성되며 175ha의 파괴된 산림이 복구된다고 한다.

정부는 보는 주민들이 나무심기를 장려하고 산림을 확대보호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참가할것을 호소하였다.

—라이가 수지오물에 의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지난 10년동안 이 나라에서는 해마다 200만t이상의 수지오물이 생겨나 환경오염을 초래하였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비닐구럭과 수지병의 사용량을 줄이려고 계획하고있으며 2021년부터 수지오물에 대한 수입을 완전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레로와 무장분쟁으로 피해

• 아프가니스탄에서 《반테로전》의 후과로 무장충돌의 악순환이 계속되고있다.

1일 이 나라에서 발표된 조사자료에 의하면 그로 하여 10월에 270여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고 550명이 부상을 입었다.

• 아프리카와 중동나라들에서 계속되는 무장분쟁으로 피난민사태가 초래되고있다.

6일 유엔피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가 밝힌데 의하면 올해에 들어와 4일현재까지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넘어간 피난민수는 10만 630명에 달하였다.

불리한 날씨조건에 의해 지중해에 빠져 20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군대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얼마전 중국의 습근평주석이 남부전구를 시찰하였다. 당중앙과 중앙군사위원회를 대표하여 남부전구의 전체 장병들에게 인사를 전하면서 그는 새시대 당의 강군사상과 새로운 정세하에서의 군사전략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고 싸움과 작전지휘를 연구하는데 중심을 두고 제반 사업을 추진하며 싸움에서 이길수 있는 능력을 전면적으로 높여 당과 인민이 부여한 임무를 확고히 수행해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습근평주석은 남부전구의 어느 한 지휘소를 찾아 전구련합작전지휘체계구축 및 운영정형을 료해하였다. 이어 남부전구의 사업보고를 청취하고 연설을 하였다.

연설에서 습근평주석은 평화적인 분위기를 단호히 없애버리며 모든 정력을 싸움준비에 집중하여야 한다, 각종 복잡한 정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여러가지 태응방안을 훌륭히 갖추어야 한다, 실전화된 군사훈련에 중심을 두고 지휘훈련과 련합훈련을 강화하며 검열훈련과 대항훈련을 많이 벌려 훈련 및 싸움준비의 질과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전구지휘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군사위원회가 부여한 지휘권을 훌륭히 리행하며 지휘운영제도를 완비함으로써 지휘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담보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또한 전구당위원회가 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령도를 보장하는 한편 군대를 전면적으로 엄하게 관리할데 관한 요구를 관철함으로써 부대의 항시적인 싸움준비와 군사행동실행에 대한 중앙집권적이고 통일적인 령도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과 새시대 당의 강군사상으로 관병들을 무장시키고 당의 지휘에 무조건 복종하는 사상적기초를 튼튼히 다지며 강군사업에 투신하는 정치적열의를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하였다. 새로운 체제와 새로운 직능에 맞게 전구기관의 각급 당조직건설을 강화하고 싸움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능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중국은 정치사업에 의거한 군대건설, 개혁에 의거한 군대강화, 과학기술에 의거한 군대발전, 법에 의거한 군대관리를 전지하는것과 함께 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인 령도를 확고히 실천하는것을 군건설의 중요과업으로 내세우고있다.

습근평주석은 지난 4월에 있은 해상열병식사업과 5월에 있은 군사과학원시찰, 6월에 있은 북부전구의 해군시찰 등 여러 계기들에 군대에 대한 당의 령도를 철저히 보장할데 대해 강조하였다.

최근 여러 군부대들에 대한 습근평주석의 시찰은 중국이 군대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본사기자 렴 철 혁

우심해지는 폭발물 및 총기류사건들

최근 미국에서 충격적인 폭발물 및 총기류에 의한 범죄사건들이 련발하고있다.

지난 10월 하순에만 해도 여러건의 충격사건들이 발생하였다. 21일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충격사건으로 6명이 총에 맞고 3명이 중태에 빠졌다. 22일 밤에는 유타종합대학에서, 29일에는 노스 캐롤라이나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각각 1명의 학생이 총에 맞아죽었다.

가장 큰 물의를 일으킨 충격사건은 27일 펜실바니아주의 피츠버그시에 있는 한 유태교회당에서 일어났다. 한 백인남성이 교회당에 뛰여들어 총을 란사하였는데 11명이 죽고 6명이 부상당하였다. 범인은 체포되였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범인은 유태인들을 비난하는 글을 여러차례 발표하였으며 총기류소유면허증을 가지고 1996년부터 여러종의 총기류를 합법적으로 구입하였다고 한다. 이를 놓고 분석가들은 미국내에서 총기류규제강화를 요구하는 사회적목소리가 보다 높아질것으로 예상된다고 평하였다. 또한 이 사건이 미국사회에 배회하고있는 반유태주의의 대표적실례로서 미국—이스라엘동맹관계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고있다.

지금 미국에서는 폭발물이 들어있는 소포들이 미집권자의 정치적반대파들앞으로 발송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그 책임문제에 대한 공방전이 벌어지고있다.

지난 10월말 미련방수사국은 폭발물이 들어있는 10개이상의 소포들을 색출하였다. 밝혀진데 의하면 수신인들은 전 대통령 오바마, 전 국무장관과 중앙정보국 국장을 비롯하여 현 집권자와 행정부를 여러차례 심히 비난한바 있는 이전 고위인물들과 금융계와 문화계의 인물들, CNN방송사이다.

미국의 대중보도수단들은 이 폭발물소포사건을 둘러싼 미국정계의 움직임과 중간선거에 미칠수 있는 후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보도하였다.

보도에 의하면 혐의자로 보이는 한 남성이 체포되였다. 그는 지난 시기 마약소지,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특히 2002년 어느 한 회사를 폭탄으로 파괴하겠다고 위협한적이 있는 인물이라고 한다. 혐의자가 리용한 차안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되는 인쇄물들이 있었다고 한다.

한편 미련방수사국은 기자회견에서 폭탄이 들어있는 3개의 우편물이 또다시 발견되였는데 거기에서 채취한 지문이 혐의자의 지문과 일치하다고 주장하였다.

여론들은 미국내에서 범람하는 폭발물 및 총기류에 의한 범죄사건들이 정치적불안정의 주요원인으로 떠오르고있다고 평하고있다.

본사기자 손 소 연

전염병 전파, 방지대책 강화

• 그리스에서 서부닐비루스가 계속 전파되여 올해초부터 1일현재까지 감염자수와 사망자수가 각각 312명, 44명으로 늘어났다.

이 나라의 질병통제센터가 이에 대해 밝혔다.

• 소말리아에서 10월 21일까지의 1주일동안에 32명의 콜레라환자가 발생하였으며 그중 1명이 목숨을 잃었다.

2일 세계보건기구는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약 6500명이 콜레라비루스에 감염되여 앓고있다고 밝혔다.

• 나이제리아의 곰베주에서 10월초부터 현재까지 약 90명의 콜레라환자가 발생하고 그중 13명이 목숨을 잃었다.

1일 주보건당국은 이에 대해 전하면서 발병원인은 주민들이 오염된 물을 리용한데 있다고 밝혔다.

• 우간다보건상이 2일 에볼라비루스전파를 막기 위한 예방접종계획을 발표하였다.

계획에 따라 5일부터 민주콩고와 국경을 접하고있는 서부의 5개 지역에서 약 3000명의 의료일군들에 대한 왁찐접종이 진행되게 된다.

• 르완다정부가 10월 29일 서부국경지역에 현대적인 설비들을 갖춘 에볼라대응센터를 새로 개설하였다.

이웃나라인 민주콩고에서 이 전염병에 의한 피해가 확대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개설된 센터에서는 에볼라비루스가 국내에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감시를 강화하며 있을수 있는 환자들에 대한 치료사업을 진행하게 된다고 한다.

살인범죄

일본의 시마네현에서 5일 한 청년이 자기 어머니와 할머니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앞서 2일 미국의 플로리다주에서 15살 난 소년이 바줄로 어머니의 목을 조여 죽인 다음 불량배들과 작당하여 시체를 땅속에 묻어버린 범죄가 감행되였다.

3일 아리조나주에서는 한 할머니가 손자가 쏜 총탄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경제건설소식

재생에네르기리용목표

로므니아가 2030년까지 전력생산량의 32%를 재생에네르기로 충족시킬것을 목표로 내세우고있다.

10월 30일 정부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수력과 풍력, 태양열을 비롯한 재생에네르기개발사업에 힘을 넣을것이라고 밝혔다.

대삼건설추진계획 발표

나이제리아정부가 6일 도로와 다리, 발전소를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추진시킬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에 따라 라고스—이바단고속도로와 아부자—카노도로건설 등 현재 자금부족으로 부진상태에 있는 5개의 건설대상들에 대한 국가투자가 강화된다고 한다.

새년도 국가예산 채택

봉쁘국회가 2일 2019년도 국가예산을 승인하였다.

총예산액은 1조 9000억Tug(뚜그리크)에 달한다.

예산은 국내총생산을 늘어다음해에 경제를 약 5~8.5% 장성시킬것을 목표로 내세우고있다.

급격히 줄어드는 세계야생동물마리수

세계야생동물기금이 10월 30일에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1970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에 포유동물과 새류, 물고기류, 파충류, 량서류의 마리수가 60% 줄어들었다.

그것은 생태환경의 파괴와 사람들의 과도한 사냥 및 물고기잡이 등에 기인된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ㄱ-1811781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판매등록번호 제3호) 전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2492, 당력사교양부 373-2686,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2782,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